

현대중공업가족

2018 01

2018 희망을 말하다

신년사 / 한 눈에 보는 2018년 / 사우들의 새해 다짐 / 새해 달라지는 것들 / 트렌드 따라잡기



Contents

2018 · 01 January

2018 희망을 말하다

- 04 신년사
- 16 한 눈에 보는 2018년
- 18 사우들의 새해 다짐
- 20 새해 달라지는 것들
- 22 트렌드 따라잡기

사람 · 일

- 24 현장을 가다
현대미포조선 안전팀
- 28 뉴스 포커스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2부 용접 신기술 개발
현대삼호중공업 교육 아카데미
- 30 우리 부서 미니 사보
현대일렉트릭 ICT사업부
- 32 이달의 도전
가족과 함께 도자기 빚기 /
현대중공업 특수선생산기획부 박석준 과장
- 34 전시회 참가기
마린텍 차이나 2017
- 36 든든한 파트너
(주)삼주
- 38 알아봅시다
2018년 주식시장 전망
- 40 新 직장인 생활백서

현대중공업 문화홍보팀·커뮤니케이션부문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052)202-2239

현대미포조선 홍보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 ☎052)250-3306/3546

현대삼호중공업 총무팀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 ☎061)460-2174



16



24



34

56





“명선도의 황홀한 일출”

새해의 희망을 담은 해가 힘차게 떠오릅니다. 우리 사우 모두에게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진 배기웅 작가



43



50



66

지역 · 삶

- 42 지역 소식
언양알프스 시장 / 울산대공원 장미원 빛축제
- 44 만나보았습니다
주말농장 운영하는 사우들
- 46 자녀와 함께
부산 초량 이바구길
- 48 이달의 영화
주만지 : 새로운 세계 VS 메이즈 러너 : 데스 큐어
- 50 가볼 만한 곳
부산 '깡깡이 마을'
- 52 사랑을 나누시다
울산 동구 전하동 류성필 씨
- 54 건강칼럼
대장 용종
- 56 나를 만나는 시간
직장인 심리치유법 : 행복 훈련

보람의 일터

- 58 뉴스 하이라이트
- 62 그룹사 소식
- 64 축구단 소식
- 66 현대예술관 추천 강좌
유로피안 프랑스 자수
- 68 현중 가족 글마당
- 76 사우들의 추천 도서
- 78 축하합니다
- 80 생활법률
- 81 만화
- 82 쉬어가는 페이지
- 83 공감 마당





“현중가족 힘 모아 위기를 헤쳐갑시다!”



현대중공업 강환구 사장

친애하는 현대중공업 임직원 여러분,

무술년(戊戌年)의 희망찬 해가 솟아올랐습니다. 올 한 해 임직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은 우리 현대중공업 구성원 모두에게 시련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수주 절벽으로 인한 일감부족이 본격화하면서 순환 휴직, 휴업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수주는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감 부족으로 건조량이 줄면서 매출이 10조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물량은 더욱 줄어들어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특히 해양사업은 몇 달 후면 일감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회사는 안팎의 경영환경과 현재 확보된 일감을 감안해,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2조원 가량 줄어든 7조9천870억원으로 줄여 잡았습니다.

이러한 목표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60%나 줄어든 수준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매출 감소, 일감 부족, 시황 회복 지연 등 수많은 난관이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다

면, 당면한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회사는 위기 극복의 굳은 각오를 담아 2018년 슬로건을 ‘현대정신, 위기 돌파’로 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한 일터 조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안전 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어려운 사업환경에서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임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중대재해를 대폭 줄였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우리 회사 고유의 안전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통합안전교육센터’ 건립과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중대재해 없는 원년(元年)’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통합안전교육센터에 개설된 70여개의 안전교육 과정의 대부분을 관련 자격 취득 과정으로 운영하고, 실습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 안전교육의 일대 혁신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중대재해 차단대책 및 안전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안전관리 체계의 내실을 다지고 실행해 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과 원칙 준수의 안전문화를 완전히 정착시킴으로써 안전에 관해서

는 누구나 예외 없이 원칙이 적용되는 현대중공업만의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제도와 설비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그 근간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안전의식은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임직원 여러분도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가경쟁력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일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주 확대가 절실합니다. 일감 부족은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조선업체가 겪고 있는 현상으로, 모두가 생존을 걸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우리의 텃밭으로 생각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마저 중국에 밀려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해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 격차가 예전보다 크게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해양플랜트 시장에서는 동남아와 중국 업체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갈수록 우리의 설 자리를 좁혀오고 있습니다.

수주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결국 원가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올해는 건조량이 줄면서 고정비 비중이 높아지고 원자재 가격은 올라 우리의 원가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는 조선 생산조직의 공정별 운영 및 도크별 선종 전문화, 엔진 주요 기능품 국산화, 전략적 기자재 구매, 설계 품질 향상 등을 적극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고 자재비 절감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불요불급한 경비를 축소하는 긴축 경영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원가경쟁력 확보 없이는 수주가 어렵고, 수주를 한다고 해도 적자가 되어 또 다른 어려움의 불씨가 될 뿐입니다.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에 임직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기술과 품질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품질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는 2020년부터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가 임박함에 따라 최근 선박 시장에서는 '친환경'이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본격적인 수요에 앞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시장의 요구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이미 벌크선, 유조선 등 다수의 LNG연료 추진선을 수주했으며, 고효율 이중연료 힌센엔진,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저감장치 등 친환경 엔진설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R&D를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선종의 LNG연료 추진선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시장을 대비해 CNG(압축천연가스)선, CO₂운반선, 수소운반선 등 신선종 개발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경제·안전운항시스템 개발과 선박 기자재 연계 스마트서비스 도출 등 통합 스마트 선박 솔루션의 고도화를 진행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야드 구축을

위한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품질 강화 노력도 절실합니다. 조선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품질에 대한 선주들
의 요구와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
습니다.

고객은 완벽한 품질로 신뢰를 얻어야만 다시
우리를 찾을 것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품
질 실패 비용은 회사 경영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품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넷째, 신뢰와 협력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
은 우리 임직원간의 신뢰와 협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임직원간의 신뢰와 협력 없이는 위기
극복을 위한 어떠한 대책과 노력도 제대로 성
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회사 상황을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수시로 경영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마음을 열고 임직원 여러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
를 기울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재건하는데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노사 간의 협력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빼놓
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 연말 임단협 잠
정 합의 과정에서 확인한 노사 상생의 정신
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이해하고 협력
하는 노사관계 구축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협력회사는 현대중공업 재도약의 동
반자라는 인식 아래 협력회사들의 체질 개선
과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
끼지 않겠습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벽두부터 회사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
을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그에 맞는 해법을 마
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세계
1위’라는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껏 경험하지 못한 냉혹하고 치열한 생존 경쟁
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
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뼈를 깎
는 노력만이 현대중공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올해 무술년은 충직과 근면의 상징인 개의
해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다시 현대정신을 되
새겨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겠다는 일념
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2018년은 고생은 끝
나고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
시고 한 해 동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강 환 구

“새로운 가치 창출로 미래 성장 기반 다져야!”

친애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사우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현대미포조선은 물론 사내·외 협력사 모두 무재해와 함께 내실을 더욱 탄탄히 다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및 생산 확대로 인해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 등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더욱 강화되고,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의 불확실성 등도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년째 시황 침체를 겪고 있는 글로벌 조선/해운업계는 지난해부터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속도는 올해도 매우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더욱 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회사 안팎으로 많은 변화를 요구받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임직원 및 협력사 사우 여러분!

회사는 올해 당면한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조 척수는 용골저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4척이 늘어난 55척으로 정했으며, 매출목표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2조7천6백억원으로 수립해 내실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더욱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해에는 “현대정신, 위기돌파!”라는 슬로건 아래, ▲V1234 성공적 정착 ▲원가 절감으로 수주경쟁력 강화 ▲안전한 환경·무결점 품질 ▲믿음과 소통의 일터 조성을 경영방침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포가족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숙한 안전문화를

정착시킵시다.

여러분들의 안전은 회사 존립의 근간이며,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미포스(MIPOSS)’라는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미포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어떤 훌륭한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미포가족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기본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개인과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을, 회사에는 최고의 경쟁력을, 고객에게는 최고의 감동을 안길 수 있도록 성숙한 안전문화를 반드시 정착시킵시다.



현대미포조선 한영석 사장

둘째, 수주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되어 왔던 조선업계의 시황회복 전망이 2020년 이후로 다시 늦춰졌습니다.

수년째 계속되어 온 수주가뭄으로 인해 우리회사를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가 지난해부터 생산물량을 크게 줄였으며, 올해도 여전히 구조조정, 순환휴직 등을 통해 부족한 일감을 나눠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지금 건조 중인 대부분의 선박들은 수주가뭄 속에서 최소한의 조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한 것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회사 또한 올해야말로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비상한 마음가짐으로, 원가 절감을 통한 수주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생산 현장, 사무실 가릴 것 없이 자재, 에너지, 비품 등 모든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아끼고, 줄이고, 다시 한 번 더 쓰는 노력을 통해 원가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주경쟁력을 더욱 높여가야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품질과 납기준수는 최고의 영업전략입니다.

우리회사가 선박 건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기존의 고객들을 잃고서는 결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한 일감을 지켜내고, 나아가 새로운 일감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완벽한 품질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표준작업 준수를 통한 완벽한 품질의 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더 많은 일감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고객과 약속한 납기일은 반드시 지켜 굳건한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V1234'를 조기 정착시켜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V1234' 경영전략은 MR 탱커를 기준으로 계약에서 인도까지 1년 안에 건조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정착시켜야 하는 운동입니다.

'V1234'를 2018년도 상반기 중에 완벽히 정착시켜야만 우리가 추진 중인 'Vision 2021'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V1234' 경영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반드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전 부문이 힘을 쏟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화합과 협력으로 당면한 위기를 이겨냅니다.

우리의 일터가 더욱 신바람 나고 보람된 곳이 되려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또, 한 부서나 팀만의 실적 개선이 아니라 회사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공통된 목표를 위해 서로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사 또한 그동안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이라는 소중한 전통을 밑거름 삼아 당면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내의 협력사와도 더욱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

지·발전시켜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값진 열매를 함께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사우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는 기대감 보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불황의 터널이 수년째 계속되면서 이제 위기란 말조차도 마치 일상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의 마음가짐도 무너지고 또 그 만큼 느슨해지지 않았나 우려도 됩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환율하락과 더불어 금리인상과 원자재가 상승 등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동종사와의 수주경쟁 또한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포가족들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께서는 자본, 기술, 경험 그 무엇도 풍족하게 갖고 계시진 않으셨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든든히 떠받치는 유수의 기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또한 지난 40여년간 숭한 역경을 이겨내게 한 '창조적 예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이라는 '현대정신'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자신감을 갖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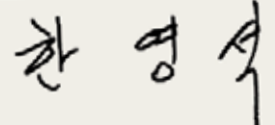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각 부문, 부서, 팀, 그리고 개개인이 저마다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올 연말 우리 앞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2018년 새해 아침,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

사장 

“혁신적인 사고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도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2018년 세계 경제는 일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인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이어진 경기 침체 끝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내총생산이 견고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물가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산업은 건조 물량 부족에 따른 인력과 시설의 축소 운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선사들이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긴축과 위기 관리, 수주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수주 여건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우리의 물량 갈증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선가 하락과 후판 가격 상승, 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강세도 조선사의 손익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2018년 경영목표로 매출 2조5천억원과 수주 선박 36척 등 34억불을 책정했습니다.

선박 건조는 총 30척, 조립물량 기준으로 73만톤가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중 탱커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척으로 83%에 달합니다. 반복 건조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향상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낮은 선가에 수주한 선박 건조가 늘어나는 만큼 손익 개선을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비용지출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임직원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이상과 같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실천해 당면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은 우리 회사의 최우선 경영 목표입니다.

최근 강화되는 정부의 안전 법규와 정책에 발맞춰 안전문화 정착, 절대수칙 준수, 중대재해 근절에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어렵지만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의 노력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주위에 불안전요소가 없는지, 작업 중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윤문균 사장

둘째, 혁신과 내실을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내실을 기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열쇠입니다. 전사적인 원가절감 운동과 전후 공정 간 협업 강화, 공정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부족과 환경적 제약 등으로 개선이 어려웠던 사항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실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는 직원들의 혁신 의지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과 있는 곳에 포상 있다'는 원칙을 강력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품질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입니다.

선박 건조 물량이 밀려들던 시절에는 비용과 품질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최대한 공정을 빠르게 진행해 단기간에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품질 실패로 인한 비용을 근절하고 품질로 고객감동을 실천해야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품질로 고객만족을 실천하는 회사, 품질 때문에 고객이 다시 찾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올해도 우리를 둘러싼 경영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와 사 그리고 우리 모든 현대삼호가 죽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2018년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위기를 딛고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주영 창업자께서는 “길을 모르면 길을 찾

고, 길이 없으면 길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적 예지와 적극의지, 강인한 추진력의 현대정신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갑시다.

위기 극복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여러분의 뜻과 의지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회사와 자신을 위해 크게는 국가와 지역 경제를 위해 우리 현대삼호중공업을 “희망이 있는 회사, 경쟁력 있는 회사, 안전한 회사”로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현대삼호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계획 하시는 모든 일에 큰 성취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윤 문 준**

“기술·연구 중심 성장 전략으로 제2도약!”

우리 회사는 지난해 사업분할을 통해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하였고, 30여년간 영위하였던 사업의 터전을 울산에서 대구로 이전하여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 성장을 위해 정말 바쁜 해를 보냈습니다. 이에 동참하고 노력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침체와 일본 등 주요 경쟁사의 공격적인 사업 전개, 신규 업체들의 로봇 사업 진출 등 우리를 둘러싼 사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창업동지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향후 '세계 일류 로봇 종합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구체화하고자 **기술과 연구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객이 당사 제품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주력제품인 자동차 산업용 로봇과 LCD 로봇의 **제품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제품의 경박단소를 기반으로 한 성능 특화는 물론 원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설계 개선을 넘어서 설계 혁신을 모색하여야 하며, 모듈화/자동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정량적 계측 기반의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 및 제품 모델 확대**로 기존 고객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고객도 확보할 것입니다. 전자산업, 금속산업, 식품산업 등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 인건비 상승과 다품종 소량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협업로봇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향후 로봇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에 진입

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즉, 기존 로봇 단품 사업에서 탈피하여 고객사에 필요한 단위 로봇 자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상호 연계된 생산 라인 자동화시스템을 개발 적용하는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누적 출하된 로봇이 5만대에 근접함에 따라 고객사의 원활한 로봇운영을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진단기능을 보유한 로봇 모니터링시스템, 빅데이터 기반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원격 진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로봇사업의 성장성이 두드러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하여 생산을 포함한 현지 업체와의 전략적 사업협력을 추진하고, 권역별 영업/서비스센터 설립 등 다양한 영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유럽 내 영업 대리점을 확대하고 부품창고도 설립함으로써 신속한 고객 대응력을 확보하여 유럽 시장의 매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현대로보틱스 가족 여러분!

“Robot for you”, 고객, 주주 그리고 우리를 위한 로봇사업입니다. 현대로보틱스의 발전은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보다 뚝뚝 뭉쳐 2018년을 열정과 혁신으로 만들어 갑시다.

희망찬 2018년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로보틱스 대표이사

부사장

윤 중근



“글로벌 R&D 협업·스마트 팩토리로 지속성장”



존경하는 현대건설기계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의 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사가 독립법인으로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건설기계 업황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반짝 호황에 취해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에 겪었던 큰 어려움을 언제든지 다시 겪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회사는 '글로벌 매출 3조2천834억원 달성'이라는 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지속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회사에는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철저히 수익성 위주의 가치 경영을 추구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제값 받을 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겠습니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품질, 고성능 제품을 만들고 그에 상응하는 판매가격을 책정해 확실한 수익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선진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현재 미니굴삭기에서 휠로더, 백호로더 등의 품목으로 확대해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와 수익성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생산공정, 구매 등 제품 제작 전 과정에서 비효율과 낭비를 철저히 제거해 지속적인 원가절감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수익성 위주의 가치경영이 현실화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 확보에 달려있습니다. 본원적 기술경쟁력 확보 없이 시황회복에 기댄 실적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올해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대폭 늘리고 신뢰성센터와 제품 시험장을 구축해, 우리가 만드는 모든 제품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사/중국/인도 연구소와 유럽/북미 리서치팀간 유기적인 글로벌 R&D 협업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등 기술개발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운영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본사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화 하여 고급제품 생산 및 첨단기술 개발을 전

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공장은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해 고객 니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착수에 들어간 글로벌 통합 정보시스템을 작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 생산, 구매, 품질 등 모든 경영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 운영 효율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사업 추진과 신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시행한 '현대건설기계 옥션'을 올해는 명실상부한 중고 장비 거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역 작업환경에 최적화된 지역별 전략모델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원격진단 및 전자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굴삭기 등 미래 제품 개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소통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단 한 명의 직원도 작업 중 다치는 일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여러 안전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해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원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이를 통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는 소통의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사업성과로 이어질 때에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사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동반성장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환율과 미국발 금리인상 본격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듯 보였던 일들을 보란 듯이 해낸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맡은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올 한 해가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건설기계 대표이사

사장

“첨단기술·명품완비 도약의 원년 만들자!”

2018년 무술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어느 때보다도 시장환경이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시장 환경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6년을 저점으로 글로벌 선박 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선박용 전장품 발주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국내 건설업체들의 수주 소식도 다시금 들려오고 있으며, 미국 시장은 여전히 활황이 지속되고 있고, 유가 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한 성장 잠재력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진 아세안(ASEAN) 시장이 우리에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사우 여러분,

2018년을 우리 현대일렉트릭의 ‘도약의 원년’으로 만듭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우들과 함께 희망찬 2018년을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첫째, 최고 품질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는 품질혁신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경영을 할 것이며, 품질 전문가를 영입하고 스마트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더불어 품질로 인한 비용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기본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제품은 명품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입니다.

둘째, 첨단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쟁이 치열한 저부가가치 시장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회사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스위스 유럽연구소에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채용하여 첨단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해나감으로

써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새롭게 출범한 CIC(사업본부 독립경영) 체제를 조속히 정착시켜 각 본부가 시장과 제품에 특화된 경영전략을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문이 책임감을 갖고 시장과 고객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현대일렉트릭 가족 여러분,

지난 해 안전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우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들께서 아무런 걱정 없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장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공장 레이아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식당과 휴게시설 개선 등 사우 여러분들께서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가족 여러분,

우리 회사의 과거를 뒤돌아 보면, 한 해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해내는 법이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밖에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정주영 창업자의 말씀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한다면 2018년은 현대일렉트릭 도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1월 3일

현대일렉트릭 대표이사

사장



“차별화된 서비스 고도화에 신사업 추진 박차”



친애하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직원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정유년이 저물고 희망찬 도전의 꿈으로 가득 찬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7년은 현대글로벌서비스가 현대 중공업의 큰 품 안에서 벗어나 “글로벌 엔지니어링 서비스 전문회사”로 첫 걸음

을 시작한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6년 12월 회사를 설립한 이후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임직원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잘 극복하고 신 시장을 개척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역량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수 차례의 ‘대륙별 글로벌 서비스 데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1천여 선주 및 해운선사 등과 회사의 경영 비전을 공유하고 차별화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며 폭 넓은 교류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뒤돌아 보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달려왔던 한 해였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회사는 2018년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Change Together, Challenge The Future”라는 회사 슬로건과 “고객가치 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성장 동력 발굴, 혁신과 소통” 등 4가지를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정했습니다.

세계 시장 경기의 혹독한 시련도 있었지만 2018년 경영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함께 굳건한 의지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며, 독창적 엔지니어링 기술력과 확고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온리원 경영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글로벌 리더가 됩시다.

급변하는 세계 조선·해운 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스마트십 솔루션 서비스 시스템(Smart Ship Solution Service System)을 조기에 구축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기반으로 서비스 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과 시장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선두에 서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결정

적인 역할을 현대글로벌서비스가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고객 신뢰와 협력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의 가치 창출을 통한 이익 극대화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글로벌 경영을 강화합니다.

전세계 모든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 창출에 기반을 두고 모든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과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모델도 적극 발굴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서비스 사업을 다각화하여 세계 일류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조선·해양분야의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로 주목 받고 있는 ‘친환경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및 고유황 저감기술 등 선박 개조 사업’과,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스마트십 토탈 솔루션 서비스(Smart Ship Total Solution Service)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신조에서부터 부품 및 서비스 시장(After Market)에 이르는 모든 사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내실 있는 성장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인재 육성에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

세계 시장은 급변하고 불확실하지만 이럴수록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작은 이슈도 철저히 관리하여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우뚝 서는 날을 만들 것입니다.

친애하는 현대글로벌서비스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2022년 “세계 일류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의 열정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올 한해 ‘위대하고 담대한 도전을 통해 우리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이사

부사장 안광진

“기술확보·흑자달성 자립경영기반 확립”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특히 태양광 발전의 지속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3020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태양광 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은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가 현재의 엄동설한을 이겨내고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다음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첫째, 흑자달성으로 자립경영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흑자달성은 독립회사가 내·외부로부터 객관적인 가치를 검증 받음과 동시에, 사업 확대 및 자립경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 임직원의 하나된 마음으로 ‘강소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반드시 흑자를 달성해야겠습니다.

둘째, R&D 강화로 근본경쟁력을 키워나갑니다.

태양광 산업은 기술변화가 매우 빠른 첨단 산업으로, 차세대 신기술을 확보한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조직 강화와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합니다.

태양광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확대되는 가운데, 2018년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효도 예상되는 등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다변화 및 급속히 성장하는 국내시장에서의 영업력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및 투자 등 시

스템사업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임직원 여러분!

정주영 창업자께서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주영 창업자의 도전정신을 되새겨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태양이 찬란히 비추는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3일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대표이사

부사장

“위기극복 넘어 재도약 향해 힘찬 도전!”

무술년의 새로운 해가 희망과 함께
솟아올랐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일감 부족과
경기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재도약하기 위해 각 사별로 경쟁력
강화 노력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8년에는 어떤 일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각 사의 주요 일정을 정리해 보았다.

1월



| 현대중공업

- LNG이중연료추진 32만5천톤급 초대형
광석운반선(VLOC) 개발
- ITER(국제핵융합실험로) TFCS(초전도자석
구조물) 납품 개시
- 1천800톤급 잠수함 7번함 ‘홍범도함’ 완공
- 뉴질랜드 군수지원함 착공

- | 현대로보틱스 신제품 도장로봇 외 3개 모델
품평회 개최

2월



- | 현대중공업 S-OIL 울산공장 고효율중질유
고도화시설 공사 완료

- | 현대일렉트릭 헝가리기술센터 신연구동 개소

- | 현대건설기계 북미지역 VIP 평창동계올림픽
초청 행사

“2018년 현대중공업

6월



| 현대중공업

- 사우디 합작조선소 EPC 계약업체 선정
- 그리스 ‘포시도니아(POSIDONIA) 전시회’ 참가

- | 현대건설기계 브라질법인 VIP투어

7월



| 현대중공업

- 나스르(NASR) 해상플랫폼 출항
- 사우디아라비아 자잔(JAZAN) 정유공장 공사 완공
- 통합안전교육센터 개소

- | 현대상호중공업 세계 최초 LNG추진 아프리카막스급
유조선 인도

- | 현대일렉트릭 스마트 팩토리(변압기 신공장) 착공

- | 현대로보틱스 로봇관리시스템(HRMS) 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8월

- | 현대중공업 용접하계대학 실시

9월



| 현대중공업

- 17만톤급 쇠빙 LNG운반선 개발
- 독일 ‘SMM 전시회’ 참가

- | 현대미포조선 7천500입방미터급 LNG벽커링선 및
3만1천톤급 RO-PAX 인도

- | 현대일렉트릭 ‘한국전기산업대전(SIEF)’ 참가

- | 현대로보틱스 ‘로보월드 전시회’ 참가

3월



| 현대중공업

- 가스선 및 가스추진선용 경제운항시스템 개발
- SMR(단일혼합냉매) 재액화시스템 시연회

| 현대삼호중공업 사내기능경진대회

| 현대일렉트릭

- 용인 마북연구소 신뢰성센터 준공
- 고려아연 울산공장 세계 최대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준공

4월



| 현대중공업

- 말레이시아 MISC사 모스(MOSS)형 LNG운반선 5척 시리즈 호선 완공
- 필리핀 호위함 1번함 착공
- 미국 'OTC(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18' 참가

| 현대미포조선 선박 1천척 인도

| 현대일렉트릭 독일 '하노버 메세(Hannover Messe) 전시회' 참가

| 현대건설기계 프랑스 '인터마트(Intermat) 전시회' 참가

5월



| 현대중공업

- 자체 개발 Hi-Regas(재기화)시스템 LNG-FSRU 첫 탑재
- 요세미티(YOSEMITE) 에틸렌 옥사이드 리액터(Ethylene Oxide Reactor) 공사 착수

| 현대건설기계 벨기에·인도법인 VIP투어

그룹 이렇게 됩니다”

10월



| 현대중공업

- 가스처리시스템 실증시험 설비 구축
- 로봇응용 용접시스템 실증설비 구축

| 현대중공업·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 사내기능경진대회

11월



| 현대중공업

- 세계 최초 Ice Class(내빙기능) LNG-FSRU 인도
- 쿠웨이트 KNPC 정유공장 증설공사(CFP) 완공

|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 현대건설기계 중국 '바우마 차이나(Bauma China) 전시회' 참가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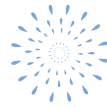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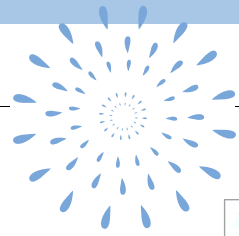


|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 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사랑의 김장 담그기

| 현대건설기계 2018년 중국 대리상 연회

| 현대-비나신조선(HVS) 선박 100척 인도



현대중공업그룹 사우들의
힘찬 새해 다짐을
블로그 'hi,hi'에서 만나보세요!

새 결심으로 시작하는 새해

무술년 해가 밝았다. 우리 사우들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2018년을 시작할까?

올해는 작심삼일(作心三日)로 끝나지 않고, 꼭 목표한 바를 성취하길 바라면서 사우들의 힘찬 다짐을 들어보았다.



양지호 차장
(48세, 현대중공업 NASR 해상공사부)

귀감이 되는 사람, 화합하는 한 해를 꿈꾸며

지난해 말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축하와 호의에 감사한 마음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장에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되므로'라는 문구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새해의 미션으로 이어받아 꾸준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동료 직원이 상호 존중 속에 화합을 맞이하는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가족, 화이팅!



천세림 사원
(31세, 현대건설기계 영업전략/홍보팀)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프로' 홍보인

2017년은 '작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깨닫게 된 유익한 한 해였습니다.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씹지 않게 하고, 작은 틈새가 타이타닉호의 침몰 원인인듯 '아주 작은 차이'가 승패를 결정할 수 있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입사 6개월차가 되는 2018년은 작년까지 정성껏 준비해온 작지만 풍성한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볼 계획입니다!

2년 간의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코스를 마무리하여 현업 곳곳에 배움을 녹여내 다방면에 걸쳐 뛰어난 홍보팀원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능수능란한 영어회화 실력과 디자인적 안목을 갖춰, 팀과 회사의 사랑 받는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권세민 대리
(33세, 현대로보틱스 품질경영팀)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첫 해

돌이켜보면 봉사, 나눔, 기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아 선뜻 나서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은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나눔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독서와 친해지고자 매월 2권의 책을 사 모으자는 다짐을 6년째 지켜오고 있는데, 어느덧 100여권의 책이 모여 저만의 작은 도서관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주변 이웃에게 첫 나눔 하는 것을 계기로 매년 100권의 책을 모을 때마다 나눔을 선물하는 새해를 맞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등지에서 목표한 결실 이뤄낼 것"

올해는 1998년 입사이후 근속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을 때 과중한 책임감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장기화되는 조선업계 불황을 몸소 느낄 때마다 그마저도 행복한 고민이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지난 10월 현대미포조선에서 전사적인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통한 회사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신설된 조직인 품질개선전담팀으로 자리를 옮겨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품질실패비용 관리 개선 및 비용절감 ▲품질보증제 재정립 및 확대시행 ▲품질문제 재발방지 프로세스 정립 등 팀의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저희 팀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팀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희 차장
(47세, 현대미포조선 품질개선전담팀)

더 멋진 2018년을 위해 도전 삼매경!

2017년엔 국제배관검사관자격, 국가기술자격, 선급용접자격 및 소형선박조종사 등 1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대마이스터고 멘토링 위원 및 국가기술자격검정 감독관 활동으로 바쁘지만 보람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현재 연수중인 직업훈련교사 과정을 수료하고, 기계공학 학사 학위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계, 전기 분야 자격증 및 해기사 자격을 취득해 더 멋진 2018년을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태어날 우리 순돌이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박영석 기사
(37세, 현대중공업 기술교육팀)

'병아리'에서 '돌고래'가 될 때까지

땅에 발이 닿지 않으면 유난히 겁을 내, 바다에 놀러가더라도 발만 담그며 아쉬움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수영실력을 뽐내는 동료 사우들을 보고 '어디 한 번 나도 해봐?'라는 생각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영을 배우기로 다짐했습니다.

초반에는 물에 뜨는 것조차 무서웠는데요, 한 달 정도 열심히 배워보니, 지금은 다행히도 조금씩 물속에서 팔을 젓고 발차기를 하며 수영과 비슷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반이라 '병아리'와 같지만, 2018년에는 꼭!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제일가는 '돌고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지 사원
(28세, 현대삼호중공업 자산운영팀)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

매해 신년마다 육중한 몸매를 보며 한탄을 금치 못했던 바, 2018년은 새신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다이어트의 의지를 불태워 10킬로그램을 줄여볼 계획입니다.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작심삼일 보내왔던 시간을 뒤로 하고, 바야흐로 2018년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목표 몸무게 달성을 통해 건강을 챙겨보겠습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장석현 기사
(34세, 현대일렉트릭 고압차단기생산부)

기초연금 5만원 오르고 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매일 폭풍처럼 쏟아지는 정책들을 기사로 접하다 보면 스팸 메일 처리하듯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 일쑤다.

기다리던 메일을 스팸함에서 찾은 적이 있다면 혹시나 놓쳐버린 소중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새로 바뀌는 제도 및 정책들을 함께 살펴보자.



신입사원도 연차 최대 11일 사용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직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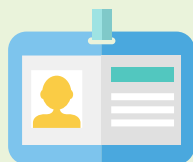
직업계 고교생(특성학교, 마에스터고 등)들의 현장 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조기 취업' 형태의 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실습 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 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 실습 산업체에서 취업 준비 기간을 거친 뒤,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난 이후에 정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특수 목적고, 내년부터 일반고와 동시 선발

2019학년도(2018년 시행 12월) 고입부터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이 없어진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됐던 세 학교는 앞으로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고 학생을 뽑는다.

따라서 2018년 12월부터 수험생은 특수목적고 중 1개교에 지원하거나 일반고 진학을 선택해야 한다. 특수목적고 입시에서 떨어진 학생은 미달된 특수목적고의 추가 모집에 재지원하거나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일반고에 임의 배정된다.



병사 봉급 인상

2018년 1월부터 외부 지원 없이 병영 생활이 가능할 뿐 아니라 저축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병사 봉급을 인상한다. 병장은 21만 6천원에서 40만5천700원, 상병은 19만5천원에서 36만6천200원, 일병은 17만6천400원에서 33만1천300원, 이병은 16만3천원에서 30만6천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 9월부터 25만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했던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해왔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소득 상위 10%(소득·재산 모두 포함하여 산정)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8년 부동산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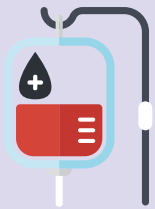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신 DTI) 정책이 시행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에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6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한편, 총부채상환비율(신 DTI)을 계산하는 방식은 소득 및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 부채를 산정은 소득으로만 했지만, 개정된 안에서는 부채의 상환능력까지 고려해 측정된다.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명의료 결정법, 웰다잉 실시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에 표명할 수 있게 된다.

정리 **이정은**은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2018년, 울산 동구는 어떻게 달라질까?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울산 동구지역 25개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돼 1만5천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 급식비 소요액은 총 80억으로, 그 중 6억2천500만원을 동구청에서 지원한다.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

급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진 및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주전동 산 173-1번지 일원의 사면 8개소, 총 15킬로미터 구간에 비탈면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낙석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대왕암 어린이 테마파크 준공

울산시가 총 105억4천만원을 들여 대왕암공원 내에 대지면적 2만1천제곱미터, 연면적 1천967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한다. 테마파크는 놀이시설, 애니메이션 관람, 로봇체험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4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황금 개의 해, 우리가 ——— 달려야 ——— 할 방향

'움직임'이라는 말은 트렌드(trend)의 뜻 '동향(動向)'의 순우리말이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움직임 방향을 파악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단순히 '2018년에 뜰 것'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키워드다. 올 한 해, 개인과 조직 그리고 사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까.

2018년, 격이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연습



2018년의 두 가지 키워드는 'Classy(격이 다른, 고급의)'와 'Counterattack(반격, 역습)'이다. 가짜이지만 격이 다른 가치와 이야기를 품은 것에 열광하며, 가상현실을 통해 일상의 경험을 바꿀 나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으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를 자각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격상시키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으며, 2017년의 대한민국은 이런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힘을 증명해낸 바 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아한 사생활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강조하면서 점점 더 자신과 사회의 격을 높여나가는 데 집중한다.

한편, 기성세대와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Y세대의 행보, 당하기만 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이킥을 날리기 시작한 비주류의 역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의식의 점점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젊은' 세대이지만 결국 '기성'세대가 될 Y세대의 라이프 트렌드를 아는 것은 2018년을 넘어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한다. 비주류의 역습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대변되는 사회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무조건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를 외치던 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의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2018년 라이프 트렌드의 핵심이다.

움직임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트렌드는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것과 연결된다. 2017년을 관통했던 이슈들을 정리해보면, 앞서 살펴본 올해의 트렌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2017년의 키워드는 '적당한 불편'이다. 사람들은 비포장 제품을 사고 DIY제품을 직접 조립하며 기꺼이 긴 줄에 서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즐긴다. 자신과 세상에 격이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Classy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진화하는 것이다.

오늘을 즐기는 옐로(YOLO)족은 무책임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면서 개성 있는 자신만의 생활을 추구하며 타투, 서핑, 인테리어 등 다방면의 유행을 선도한다.

관성을 벗어나고 기득권의 틀을 깨려는 시도는 유연한 조직문화인 애자일 스쿼드(Agile Squad)의 도입을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자발적 솔로의 삶을 당당하게 추구하며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캣 피플(Cat People)들은 이제 주류 문화를 이끌며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기득권으로 대표되던 '어른'과 '기업'들 또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듯 2017년의 트렌드는 2018년의 변화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과거의 트렌드와 실제 우리가 살아온 현실 그리고 누군가 예측한 미래의 트렌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면 그 흐름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매 순간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어떤 세대의 주체로, 조직의 일원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 모든 개인은 그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세상을 관찰하고 트렌드를 읽어내며 그 움직임에 맞춰가려는 노력은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하려는 바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참고 도서 '라이프 트렌드 2018', 김용섭 저

2017년, 적당한 불편을 즐긴 사람들



라이프 트렌드 2018

- 클래식 페이크, 아주 멋진 가짜
-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Y세대의 부상
- 시티즌 오블리주 혹은 컨슈머 오블리주
- 나만의 월든을 찾는 사람들
- 반격의 시대, 비주류의 역습
- 제모하는 남자들이 늘어나는 까닭
-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
-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 사생활의 진화, 우아한 사생활의 시대
- 애자일 스쿼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공정속도와 적정서비스, 서비스를 다시 생각한다

사보 '현대중공업 가족' 2월호부터 '라이프 트렌드 2018'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생산현장 안전 책임지는 ‘노란 파수꾼’

아침 7시 30분. 현대미포조선 별관 안전팀 사무실에서 안전요원들이 벌써부터 자신의 담당구역으로 나가기 위해 분주하다.

작업자들보다 먼저 생산현장에 가서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간밤에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현장을 둘러보며 오늘의 중점관리 대상을 미리 체크한다.





▲ 밀폐구역 산소농도 측정

▼ 가스 누출여부 점검



현장 안전 위해 ‘악역’ 자처하는 이들

“우리의 생산현장은 곳곳에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안전에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야간에도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밤새 작업환경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전요원들이 먼저 현장을 돌며 위험요소를 찾아내 제거해야만 합니다.”

37명의 안전요원들을 이끌고 있는 김동식 팀장(53세)의 설명이다. 생산현장은 구역별로 상이한 작업 특성에 맞춰 안전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선박, 공장, PE장, 도크 등으로 구역을 나눠 담당 요원을 정하고 현장의 위험 요소에 완벽히 대처한다. 도크에서 건조되는 선박에도 적당 최소 1명의 전담 안전요원을 배정해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최적의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다양한 경험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보건법, 작업수칙, 올바른 장비 사용법 등을 익혀야 하고 위급시 인명구조법이나 기본적인 안전장비 사용법 등도 숙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선박은 선종별로 구조가 다른 만큼 신입 안전요원의 경우, 최소 1개월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선임 안전요원과 함께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요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 작업자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업무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다. 각 생산 부서별로 매일 제출하는 작업신청서를 보고 화기-도장작업, 상하병행작업 등을 시간차별로 조정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의 안전요원들은 대부분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도 작업자들과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 친해지면 편의를 봐주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원들은 ‘악역’을 자처해 안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라고 김동식 팀장이 힘주어 말한다.

안전관리는 수년을 잘해왔어도 단 한번 실수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린다. 그래서 생산현장에서는 공기를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려 하는 작업자들의 의욕과 안전에 대해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치 않으려는 안전요원들의 의지가 충돌한다. 작업자들과의 크고 작은 마찰과 다툼은 이젠 이들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을 정도다. 작



▲ 족장 점검

업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안전요원들은 때로는 이들을 달래고, 제지하기도 하면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동료를 구해라!” 불길 치솟는 현장에 뛰어드는 사명감

안전요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간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목숨도 위협해질 수도 있지만 동료를 아끼는 마음과 책임감, 사명감이 이들을 사고 현장으로 이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쳐 나오는 사고현장에 뛰어들어 인명을 구조하는 일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우리 요원들은 119 대원들도 망설이는 곳에도 앞장서서 뛰어 들어갑니다”

연기로 가득 찬 화재 현장에서 구명줄 한 가닥에 의지해 손과 발로 더듬으며 작업자와 동료를 구하러 들어간 이야기, 열사병으로 쓰러진 작업자를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해낸 이야기 등 각자 겪었던 아찔했던 경험들을 풀어놓으면 하루를 다 들어도 모자랄 판이다.

특히 1997년 10월 1만벽에 정박해있던 싱가포르 국적의 ‘아틀란틱 블루(ATLANTIC BLUE)’호의 가스 폭발 사고는 미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다.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곳 저곳에서 불길이 치솟았죠. 다급히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쓰러진 분을 일으켜 세우려는데...” 말끝을 흐리는 김동식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당시 사고로 회사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다는 김 팀장이지만, 지금까지 겪었던 아픈 경험들이 모여 오늘날의 큰 자산이 됐다.

동종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안전관리

한편, 이들은 30여년 가까이 쌓아온 수리선 사업의 경험이 오늘날 안전관리에 큰 자양분이 됐다고 말한다. 수리선 사업은 정형화된 신조선 사업보다 잠재된 위험 요소가 워낙 다양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관리 또한 훨씬 까다로웠다는 것.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현대미포조선의 안전관리 수준이 동종업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이들은 자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속 위주로 안전관리가 이뤄졌다면 요즘엔 예방적 차원의 안전 작업 권유나 방향 제시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수준을 뛰어넘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 전환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용하기 시작했다는 이들의 노란색 조끼는 오늘날 달라진 안전관리 방법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멀리서 노란색의 조끼만 보여도 작업자들은 자신의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주위를 둘러보며 위험요소를 살피고 행동까지도 조심하게 된다고 하죠.”

현대미포조선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안전요원들, 이들의 노력으로 오늘도 동료들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산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

▼ 호선 작업신청서 확인



니켈강 Co₂ 용접기법 세계 최초 개발해 LNG선 연료 탱크 제작!



탱크 헤드 부분



LNG 연료 탱크 중복관

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용 연료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를 현행 3.5%에서 2020년부터 0.5%로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현대삼호중공업은 친환경 규제에 발맞춰 '9% 니켈강 플렉스코드와이어 100% 이산화탄소 용접 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LNG선 연료 탱크를 제작할 때에는 기존 선박 제작과 달리 혼합가스(아르곤 80%+이산화탄소 20%)를 활용하여 용접한다. 그러나 아르곤 가스에 대한 시설라인이 갖춰져 있지 않은 국내 조선사 실정상 LNG 연료 탱크 제작시 아르곤 가스의 주입을 위해 일일이 가스통을 사용해 용접하거나, 아르곤 가스를 저장하는 시설 라인과 용접기를 새로 장만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용접 기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번거로움은 물론 약 10억원의 신규 시설 투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특히 국내 H사의 제품을 이산화탄소 기법으로 개선하고, 일본 K사의 용접재료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원가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 개발에 앞장선 현대삼호중공업 품질경영2부 용접연구과는 지난해 5월부터 용접재료 제조사 및 DNV-GL(노르웨이-독일 연합 선급협회)의 자문, 대학 교수들의 조언 등을 토대로 연구를 시작해 최근 현장 평가를 마치고, DNV-GL로부터 승인심사를 완료했다. 아울러 국산 용접재료에 대한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새로운 용접 기법에 맞춰 연료탱크 제작 협력사에 용접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했으며, 완벽한 품질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제작 협력사를 방문하는 등 품질 지도에 나섰다. 그 결과, 선체 공정 진행률 75% 기준, 0.3%의 용접 불량률 (총 130미터 중 0.4미터 결함 발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에는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조선해양생산연구회에서 새로운 용접 기법을 발표했으며, 12월 7일에는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생산기술협의회에서 기술 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등 그룹의 원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였다. 책임 연구자는 "창의적인 발상과 도전정신으로 지속적인 제품 개선·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며,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장, 의장/시운전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활동 앞장!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최초로 시행한 의장/시운전부, 도장 ‘교육 아카데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교육 아카데미는 심층적인 실무 학습을 통한 관리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의장/시운전부문은 지난 10월 24일부터, 도장 부문은 11월 2일부터 약 2개월간 매주 1번씩 진행했다.

의장/시운전부 교육 아카데미는 의장과 배관실무, 계장과 전장 시운전 등의 이해, 해상시운전 이해와 실무 등 17개 강좌로 구성돼 기술교육원 강의실에서 교육이 진행됐으며, 도장 교육 아카데미는 부식과 방식, 표면처리 이론과 실무 도료일반, 도장 방법 도장 검사 등 9개의 과정으로 도장 기술실 2층에서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 아카데미’는 사내에서 선발된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생들이 실질적인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이러한 장점으로 매주 이뤄지는 교육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을 포함한 관리자(의장/시운전 53명, 도장 42명)는 90% 이상의出席률을 보이며,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또한 관심 있는 사우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었기에 다양

한 부서원들이 강좌에 참여했다. 임광석 차장(43세/삼호생산정보팀)은 “생산 및 작업관리를 지원하는 팀 업무상 전산 시스템 및 데이터가 생산, 자재측면에서 의장작업과 밀접하다”며,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장작업 및 세부공정 내용을 이해하고 참고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교육 아카데미는 부서간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등 의장/시운전부, 도장업무 부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부서간 진행되고 있는 공정뿐만 아니라 공정 중 일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애로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어 참석 사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한치우 과장(37세/의장2부)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부서간의 많은 이해와 소통이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 덕분에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 있었고, 애로 사항도 함께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교육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올해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에너지 솔루션 사업의 최강자”

현대일렉트릭 ICT사업부는 에너지솔루션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연구조직과 사업조직이 하나로 뭉쳐 2017년 2월 신사업추진팀으로 출범, 2017년 7월 ICT사업부서로 승격하였다. 현재까지는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나, 앞으로는 태양광 · 풍력 등 신재생용 ESS, 가스 · 열 등을 포함한 포괄 EMS(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허원범 부장

| 부서장 인사말

에너지솔루션 사업은 기존의 제조 기반 사업과는 판이하게 다른 서비스 기반 사업이자, 지식 기반 사업으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이를 조직의 역량으로 강화시키는 것이 본질적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간 부서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I 부서 업무 소개

에너지과



고객과의 계약 전 단계에 필요한 사업 개발, 제안서 작성, 기본설계, 견적 업무를 담당합니다. 완성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닌 토털 솔루션을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프로젝트 개발 단계부터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부지 개발에서부터 사업성 검토, 제안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연구개발 조직에서 축적된 에너지 운용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개발 및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에너지 수요 예측 모형 정교화 등의 개발 업무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규모 고객을 위한 배터리-전력변환장치(PCS)-수배전반을 표준화된 모델로 패키징화 한 일체형 모델(All-In-One 제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금융사와 협력하여 최저 비용 금융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ICT과



ICT과는 계약 이후 EPC(설계, 조달, 시공/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실행하는 조직입니다. 기존부터 수행해 온 시스템 통합 제어 능력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뛰어난 품질·납기 관리를 통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씨마크 호텔에 적용한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상업시설 중 국내 최초로 BEMS 설치 확인 1등급을 획득하였고, 계약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용 ESS를 설치하는 고려아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시공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 전력제어연구실과의 협업과 지식 공유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I 우리 부서 자랑



조직 구성들 간의 유기적 화합과 응집력, 새로운 사업에 대한 열정적 노력이 저희 부서의 가장 큰 무기이자 성공 기반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 부서는 연구조직과 사업조직의 융합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모범적인 조직 구성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이질적인 그룹이었지만, 동일한 목표 하에 각자가 가진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저희 부서는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에 따라 신입·경력 직원이 계속 충원되고 있어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적응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I 신입사원 한 마디



김소진 선임연구원

한달 전, 돌고 돌아 처음 입사했던 부서의 분들과 함께 목표로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저 또 한번의 변화에 불과했으나, 저에게는 마치 다시 새하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

의지를 샘솟게 해주는 변화였습니다. 울렁이는 마음을 안고, 도전 속에서 성공과 유의미한 실패를 맛보며, 부서에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제야, 새해라는 중요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맘때면 가장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한 해의 수고와 새해의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사우 여러분들도 몸은 춥지만 마음만큼은 후끈 데워지는, 따뜻하고 뜻 깊은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추억을 빚어보세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정보 교류는 활발해졌지만, 가족과의 대화까지 늘었지는 의문인 시대에 현대중공업 박석준 과장(38세, 특수선생산기획부)이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색다른 도전을 시작했다. 박 과장은 아이들에게 스크린 터치보다 자연의 촉감을 먼저 알려주고 싶다며, 가족이 함께 1주일간 도자기 만들기

1일차

웅기마을 방문

새로운 도전에 흥미를 느끼기 위해 울산 근교에 있는 외고산 웅기마을을 찾았습니다. 앞서 아이들이 학교 소풍으로 이 곳을 다녀온 터라 식상하게 받아들일까 걱정했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 떠난 날들이어서 그런지 무척 신나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소풍 때 들고 배운 걸 자랑하고 싶은지 저와 집사람을 이끌더군요. 돌아다니는 내내 눈도 마음도 상쾌한 하루였습니다.



2일차



물레 체험

저는 사내 도예동아리 '교박'의 회원으로 물레를 돌려본 적은 있지만, 물레를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본 적은 없어 실력 좋은 동료에게 아이들의 지도를 대신 부탁했습니다.

손 힘이 약한 아이들이라 보니 물레를 다루는 모습은 서툴렀지만, 맛보기 체험만으로도 즐거워해 내심 뿌듯했습니다.

3일차

흙 성형하기

공방에서 다른 회원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무엇을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흙으로 만든 작품에 관심을 보였지만, 아 빠인 제가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없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흙 성형에 나선 아이들은 각자 원하는 모양으로 흙을 쌓다가 무너뜨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손과 옷이 흙으로 지저분해져도 진지한 눈빛의 아이들을 보며, 자녀들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4일차

도자기 꾸미기

제법 흙과 친해진 아이들이 휴대폰을 만지던 작은 손으로 흙을 어르고, 액정화면을 쫓던 눈으로 도자기를 바라봅니다.

여자아이인 첫째는 아기자기한 목걸이를 만들었고, 만화 장구에 폭 빠진 둘째는 극장판 '선인장 대습격'에 나오는 선인장을 만들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취향에 따라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도예는 마음을 비추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5일차

도자기 굽기, 다음을 기억하며

소성(燒成)은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는 과정인데, 안타깝게 가마일정과 맞지 않아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동아리 방에 전기 가마가 들어왔지만 아직 시편(試片)도 소성해보지 않아, 가마를 작동시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 가마 작동법만 다 같이 공부하고, 나중에 경주에 있는 전통 장작 가마로 더 많은 작품들을 함께 소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빠로, 함께 하는 추억이 나날이 쌓여가니 행복하네요.



6일차



도자기 카페서 작품 감상

전날 소성을 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울산 중구 도자기 카페를 찾았습니다. 소성까지 끝마친 컵에 예쁜 문양을 그리고 다시 구워서 완성했는데, 반짝거리는 아이들이 눈빛에 제 가슴도 벅차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도예 체험으로 하나가 된 것 같네요!

7일차

완성된 도자기 감상

도전을 하는 동안 아이들과 많은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각자 휴대폰만 보던 습관이 사라지고, 흙과 도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도 회사일로 바빠겠지만, 종종 가족들과 도자기를 함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처럼 우리 가족에게도 수많은 추억들이 빛어지겠죠?



가족들과 함께 도자기를 빛는
박석준 과장의 도전 모습을 블로그
'hi,hi'에서 더욱 생생하게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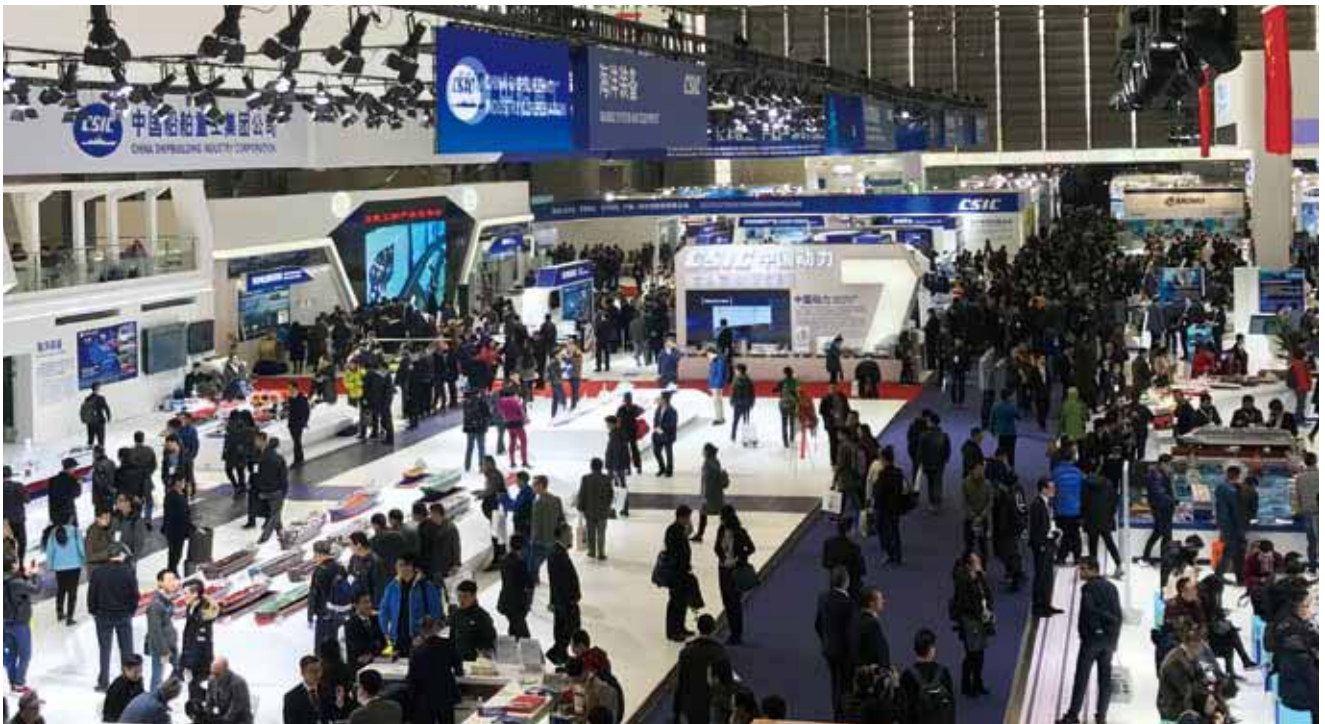
아래는 현대중공업 사회공헌팀 김태규 사수가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조선해양산업박람회 '마린텍 차이나 2017'에 참석한 소감을 적은 글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위용, 중국 '조선굴기' 실감!

올해로 19회째를 맞아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2천100여개의 참가업체가 참여하고, 6만5천여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찾았다.

총 전시면적만 약 2만7천평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코마린(KORMARINE)

조선해양 산업박람회 규모(참가업체 900여개/ 방문객수 3만5천여명/전시면적 1만1천500평)의 2배가 넘었다.



내수시장 확보로 조선굴기(崛起) 나선 중국

박람회에 참가한 전세계 조선해양 관련 업체들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이며 치열한 영업전쟁을 펼쳤다. 현대중공업의 엔진사업본부도 박람회에 참가하여 박용엔진, 힘센(HiMSEN) 추진 시스템 등을 선보이며 집중적인 홍보에 나섰다.

그 중에서도 중국 조선해양업체의 전시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수많은 인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수많은 전시 모델들은 그야말로 좌중을 압도했다.

특히, 중국의 국영 조선 그룹인 CSIC(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rporation)와 CSSC(China State Shipbuilding Corporation)의 전시장은 그 열기가 대단했다. 전시장

가운데에는 30여개의 선박 및 해양설비 모델들이 마련돼 있었고, 바로 옆 프레젠테이션장에는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가득했다.

CSIC의 전시 담당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박람회에 나올 수 있었다”며, “오늘날 중국 조선산업은 정부의 주도 아래 큰 발전을 맞이하고 있고,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표정과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고, 나의 명함에 찍혀있는 현대중공업 로고를 보고도 크게 개의치 않고 인터뷰에 응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 내에 있는 좋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다”며, 중국 내수 시장이 얼마나 활발한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그룹뿐만 아니라 전세계

조선업계가 일감 부족으로 극심한 불황을 겪는 와중에도 중국 조선업계가 어떻게 생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CSIS와 CSSC 그룹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두 중국어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홍보책자도 중국어로만 제작되어 있었다. 자국의 발주 물량으로 일감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국가관’ 부스로 주요업체들 한자리에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총 32개 국가가 참가하였는데, 주요업체들이 ‘국가관’의 형태로 한 곳에 모여 부스를 운영한 것이 눈에 띄었다.

국가관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부스인 만큼 국기, 색깔, 패턴 등으로 표현되어 각기 다른 정체성과 매력을 발산했다. 네덜란드의 부스는 오렌지색으로, 덴마크의 부스는 빨간색으로 꾸며져 있어 방문객들이 부스를 쉽게 구별하고, 관람할 수 있었다. 한국도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적극적인 영업전을 펼쳤다. 한국의 국가관은 KOMEA(한국조선해양기자재글로벌센터),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ITA(한국무역협회)의 지원 아래 약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모여 연신 북적거렸다.

한국관 부스는 푸른색과 태극 모양으로 꾸며졌고, 경남·부산·울산 등 지역별 부스를 따로 운영하였다. 또, KOMEA는 자체 부스를 운영하면서 원활한 전시를 도왔다.

이번 조선해양 산업박람회를 총괄했던 전시업체 UBM의 차호근 팀장은 “코마린은 업체별로 부스를 구성하고, 마린텍은 국가별로 부스를 구성하는 것이 큰 차이”라며, “마린텍은 국가관의 부스 위치가 매년 동일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부스를 찾아가기 편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전시회는 규모나 참가업체 숫자를 볼 때, 중국 및 전세계 조선해양 관련 바이어들을 공략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힘센엔진(HIMSEN Engines) 적극 홍보 나서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빅3’ 조선업체가 참가하지 않았지만,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본부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하여 중국 시장 개척에 나섰다. 부스에 박용엔진, 힘센(HIMSEN) 추진 시스템의 모델을 비치하고, 2개의 VIP 미팅룸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박람회 기간 동안 약 2천여명의 방문객이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본부 부스를 다녀갔고, CSIC의 순보(Sunbo) 총경리를 비롯하여 30여명의 주요인사들이 부스를 방문하여 현대중공업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마린텍 전시회는 조선굴기에 나선 중국의 조선해양업체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중국의 업체들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원자재에 더하여 기술력 또한 세계적 수준에 가까워졌음을 전세계에 알렸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국영 조선 그룹이 발전해가고, 이와 함께 내수 시장도 발전하고 있는 중국. ‘조선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한국의 조선업계와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전시회는 중국의 조선업계에 대응하여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라 하지 않았던가. 결국 냉혹한 현실을 피할 수 없다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길일 것이다.

고품질 제품, 납기 준수로 신뢰받는 기업!

(주)삼주(대표 : 임상우)는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해 3개의 공장(총 면적 6천2백평)을 갖추고 있는 철의장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60명의 임직원이 함께 세계 최고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달려 나간다.

‘견고한 기술력’, 최고의 강소기업

(주)삼주는 1997년 설립 이후 선박의 레이더를 거치하는 레이더 마스트(Radar Mast)부터 포마스트(Foremast, 확성기, 엠프 등 거치용), 라이팅 포스트(Lighting Post, 전등기구 등 거치용) 등을 주로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각 선박 갑판이나 내부 화물창 등에 설치되는 각종 플랫폼, 사다리, 시트 등 선박 구성품도 만들고 있다. 레이더 마스트와 같은 대형 의장품의 경우, 제품 제작을 위한 넓은 공장면적은 물론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주)삼주는 평균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베테랑’들이 모여 특별한 노하우와

견고한 기술력으로 품질과 납기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주)삼주는 조선 불황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매월 450톤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작년에만 연 83억6천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뛰어난 기술력과 경영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는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됐으며, 이듬해에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전라남도 중소기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기록하기도 했다.



(주)삼주

위치 전남 영암군 대불산단8로 78

설립연도 1997년 2월 24일

임직원수 60명

매출액 83억 6천만원(2016년 기준)

생산량 매월 450톤

또, 2009년부터 현대삼호중공업으로부터 총 5번의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되며 명실 공히 최고의 파트너임을 인정받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전의 힘!

‘일감 부족’과 ‘저가수주에 따른 수익성 악화’라는 조선업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삼주 임직원들은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18년 내실 다지기와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삼주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철저한 품질관리다.

주요 보직자는 주 1회 이상 공정회의를 시행하여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작업 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실행하는 물론 용접 작업시험도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납기 준수를 100% 준수를 목표로, 납기 우선 위주의 출고 및 납품 현황, 미입고 현황을 일별로 체크하는 등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이외에도 고정비 절감과 외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비를 구축해 원가 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삼주는 향후 조선시황 회복 시 물량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다.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성장 실현

이처럼 뛰어난 품질은 물론이고 납기일을 준수하는 (주)삼주에 현대삼호중공업은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년 넘게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1997년 현대삼호중공업과 인연을 맺은 (주)삼주는 현재까지 생산하는 모든 철의장품을 100%로 현대삼호중공업에 납품하고 있다.

‘이상은 높게, 희망은 가득히, 넘치는 열정으로’라는 사훈 아래 (주)삼주는 세계를 이끌어 갈 최고의 선박 구성품 제조회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당차게 밝혔다.

임상우 대표는 “열정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사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대삼호중공업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과 국내 조선산업 발전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오늘도 부지런히 동분서주하는 (주)삼주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한다.





“미국 증시는 왜 강한가?”

2018년은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간의 세계 증시의 성과를 돌이켜 보면 미국 증시는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올랐고, 이에 반해 나머지 국가들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 기간 동안 OECD 경기선행지수의 등락을 살펴 보면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경기 변동을 보였는데, 유독 미국 증시만이 경기를 타지 않고 추세적으로 올랐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기술 혁신으로 독보적인 주가 상승 이끌어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미국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 혁신을 통해 높은 성장을 달성하는 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늘려 왔기 때문에 주가가 쉬지 않고 올랐는데,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등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류의 삶을 바꾼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 즉 컬러 TV, PC, 인터넷, 핸드폰,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제품들이 미국에서 개발되고 대중화되었는데, 이러한 제품의 보급률이 높아졌던 시기마다 미국 증시의 독보적인 상승이 있었다.

가장 가까운 예로 1990년대 PC혁명을 들 수 있다.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를 주도한 기

업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었다. 혹자는 이 시대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Windows)와 인텔(Intel)이라는 단어를 조합하여 ‘윈텔(Wintel)’ 시대라고 불렀는데, 이 시기에도 미국 증시는 세계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199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위기가 많았던 시대였다. 1994~95년에 남미 위기가 있었고, 1997~98년에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었던 것만 보더라도 순탄치 않은 경기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의 폭등에 힘입어 꾸준한 강세장(Bull Market/앞으로의 시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시장)을 보였다. 이처럼 미국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독점하는 시대에는 타국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 미국 강세장 종말의 원인

그러나 이러한 강세장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무너졌다. 먼저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첫 번째 요인이다. 신제품의 보급이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것이 과열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 동안 투자를 위해 부채를 늘린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강세장이 끝났던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경쟁적 설비 투자에 의한 공급 과잉 발생이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생산능력을 늘렸는데, 이것이 결국엔 공급 과잉을 발생시켰다. 이는 제품 가격을 추락시키고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하게 만들어 강세장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번 미국의 강세장은 적어도 후자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1990년대는 IT 하드웨어 중심이었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했지만, 이번 경우는 IT 소프트웨어 중심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IT 산업의 생산능력 증가율을 살펴 보면 1990년대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된다. 최근 미국의 기업 부채 비율이 1980년대 이후 최고치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일부 한계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미국이 경기가 개선되는 속도에 비해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펼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2018년 증시 전망

그러나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은 보다 공격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는 미국의 하이 일드(High yield/고수익률) 채권 금리의 등락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강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자본시장에서 급성장하는 국가의 신흥시장)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기 시작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난 2년 동안 미국만이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었다면



올해는 주요 이머징 마켓도 긴축에 동참하는 국면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미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긴축 정책이 확산되면 글로벌 경기가 갖게 되는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동안 미국 경기를 상징하는 ISM 제조업 지수(구매자 관리 지수)가 꺾이지 않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 ISM 지수가 꺾일 때 나머지 국가들의 경기가 바로 꺾인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ISM이 꺾인 이후에 더 상승하다가 모든 나라들의 경제지표가 다 꺾일 때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때 2018년 증시는 '상고하저(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 하락함)'의 패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2018년 증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는 미국의 하이 일드 금리가 오르는지 여부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지표가 꺾이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당사 리서치센터는 2018년 KOSPI의 목표 수준을 2830 포인트로 잡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출 대형주 중심의 상승장에서 중소형 내수주로 상승 종목이 확산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출증가율이 올해 조금씩 둔화되고, 반대로 국내의 요인으로 억눌렸던 내수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글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제1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신종 직장인 바이러스

우리 직장인들은 모두 ‘건강한 환자’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씩씩한 몸과 마음을 가졌지만, 드러낼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환부(患部)를 한 두 군데씩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픈 이에게 필요한 최고의 위로는 공감! 그래서 이번 첫 화에서는 우리의 건강한 일년나기를 위한 치유의 시간을 마련했다.



#1.

직장인 10명 중 7명 - ‘넵병’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넵’이라고 대답하는 강박 증세인 ‘넵병’이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넵병’이 ‘직장 권위주의’의 또 다른 반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사실 ‘넵병’에는 고객이나 상사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더 결의에 차 보여야 하는 에스맨의 고달픈 애환이 서려있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가 직장인 7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4%의 응답자가 지시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에도 ‘넵’ 등의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하필 ‘넵’일까? 일반적으로 ‘네’는 너무 딱딱하고, ‘넵’은 가벼워 보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넵’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표 1 - 직장인이 ‘넵병’에 걸리는 이유〉

네 → 너무 딱딱하고 쌀쌀맞아 보인다.	넵 → 날아갈 듯 가볍다.
넵 → 같이 날아간다.	넵 → 오타다.
넵 → 다섯.	예아 → 외국계 회사로 이직을 권한다.
넵 → 절도 있고 깔끔하며 건조하지 않고 적당한 무게감까지 있다.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는 ‘넵’은 표준어 아니기 때문에 ‘옛([감탄사] 윗사람의 명령이나 요구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대답할 때 하는 말)’을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러

나 이는 그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대답일 뿐 직장인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다. 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관계를 통해 언어와 관계의 경직성을 해소해나가는 것이 직장인의 ‘넵병’을 치료하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카톡 카톡”, “카톡 왔쑈”, “카토옥~!”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카톡 알림음이 우리 일상의 자연스런 BGM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지인과의 연락을 위한 이 알림 소리가 항상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퇴근 후 수시로 오는 ‘업무 관련’ 카톡 때문이다.

문자나 전화에 비해 친근감이 드는데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는지 즉각적인 확인까지 가능해 상급자 입장에서 이보다 반가운 스마트 기술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하루를 끝내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카카오톡은 또 하나의 상사로 자리 잡았다.

한 취업 포털사이트의 조사 결과, 직장인 중 85.5%가 퇴근 후 카톡 등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대상은 ‘상사’가 68.4%로 가장 많았다.

〈표 2 -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 연락을 하는 사람은?〉

1위 : 직장 상사 (68.4%)
2위 : 동기 및 동료 (17.1%)
3위 : 협력사 및 고객사 (12.2%)

자료 : 잡코리아, 직장인 717명 대상

사생활을 보호하고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기 위해 정치권도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난 8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 메시지,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직장인들의 카톡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시간과 업무 외 시간을 구분하는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정말 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퇴근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직장인의 매너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매너가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 연락이 빨리 안 된다고 보채는 건 가족과 애인이면 죽하다.

직장인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다양한 신종 바이러스들은 바쁜 사회를 견뎌내면서 나타나게 된 ‘마음의 병’이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박관념을 만들고, 기준을 벗어난 삶을 살면 패배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직장인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하고 또 소중한 사람이다. 회사라는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는 데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러니 우리, 아프지 말자!

#2.

이제 그만
로그아웃 하고 싶다
- ‘카톡병’



블로그 ‘hi,hi!’에서 직장인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新 직장인 생활백서’를 연재합니다

산악문화관광 특색 살린 전통시장

울산 울주군은 '영남알프스'라는 입지의 특성을 반영해 지난 2014년 '언양알프스시장'으로 전통시장의 명칭을 바꾸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1천미터가 넘는 산이 7개나 모여있는 산악관광문화, 반구대암각화 등 선사유적, 언양 한우 등 대표 먹거리를 한데 묶어 지역 특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언양알프스시장'은 베이스캠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장을 들어서면 참기를 짜는 고소한 냄새가 골목을 가득 채운다. 미나리, 불고기, 곰탕 등 유명한 특산품과 먹거리가 가득하다. 따뜻한 즉석 두부와 저렴한 가격의 떡, 쇠고기국밥, 선지국밥 등 따뜻한 국물 그리고 계속 맛이 생각나는 작은 분식집 등 시장 곳곳 훈훈한 인심이 매서운 겨울 추위를 녹인다.

싼 값에 좋은 고기를 살 수 있는 유통센터 등 지역의 농축산물 뿐만 아니라 공산품, 생활필수품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 시골 장터답게 낫, 호미 등 농기구를 판매하는 장면도 볼 수 있다. 추억 속으로 사라져가는 대장간이지만, 이 곳에서는 64년째 터를 잡고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가 시장 2층에는 고객쉼터를 겸해 갤러리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장터 행사 및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대가 시장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상인과 고객들의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한편, 영남알프스시장 주변에는 언양 읍성 벽화거리, 등억 온천단지 그리고 국보 제 285호 반구대암각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마련돼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 즐겨보길 권한다.

언양알프스시장

주소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 10

취재 이승희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한겨울 코끝 시린 깜깜한 밤일수록 하늘의 별빛은 더욱 반짝 빛나는 법. 연일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는 요즘, 눈이 시리도록 영롱한 빛축제를 함께 즐겨보자.

매년 5월이면 화려한 각양각색의 장미들의 향연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울산대공원 장미원이 작년부터 겨울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1월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18년 1월 21일까지 울산대공원 남문 장미원 일원에서 '별빛 나라에 빠지다'라는 주제로 빛축제가 진행 중이다.

미로터널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있고, 쉼터에는 난로도 마련되어 있다.

일정액의 입장료를 내면 새 단장을 마친 동물원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빛축제 기간에는 주말마다 버스킹 공연도 열릴 예정이다.

펭귄, 유니콘, 산타 할아버지, 호박마차, 고래, 빗터널 등 다양한 빛조형물 포토존도 설치되어 있다. 지상으로 내려온 영롱한 별빛과 함께 나의 인생사진을 찍어보자.

한편, 갈티못에서는 '빛의 성 미디어 아트쇼'라는 이름으로 음악과 함께 하는 빛 공연도 진행 중이다.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이니 꼭 관람해보시길 추천한다.

코끝 시린 겨울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가까이 위치한 울산대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서보자. 두툼한 패딩과 무릎담요, 보온병에 따뜻한 차나 물 등을 챙겨가면 감기 걱정 없이 파스한 추억을 한아름 담아올 수 있지 않을까.

형형색색의 화려한 빛들로 한껏 뿜낸 울산대공원 장미원에서 겨울밤 낭만적인 빛의 향연에 취해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내 마음 속 잠들어 있던 동심을 깨워보길 바란다.

취재 김하연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데이트 코스,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딱!

울산대공원 장미원 빛축제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94

입장료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원, 어린이 500원
(36개월 이하 영아 무료)

이용시간

· 빛축제 점등 오후 5시 ~ 10시,

· 나비식물원 곤충생태관 및 장미원 동물원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매주 월요일 휴장)



“키우는 즐거움, 수확의 기쁨”

사우들이 푸성귀나 과일을 농사 지으며
가족들의 먹거리와 화목을 일구는 곳.
‘주말농장’에는 한해 동안 부지런히 농사
지은 추억이 쌓여 매년 푸르게 싹이 틈다.
하얀 겨울, 초록 잎이 넘실거리는
배추밭의 정경이 낯설기도 하겠지만,
올해도 주말농장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지난해 텃밭을 잘 가꾼 사우들을 소개한다.

고사리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3대(代)가 일군 10평의 행복

배추를 짚으로 예쁘게 묶어놓고 김장
의 수확을 앞두고 있는 5번 경작지 56
번 밭의 주인, 신영훈 과장(35세, 현대
중공업 FPSO 입찰팀)을 만나러 간 날
은 유난히도 추운 날씨였다. 그 탓에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주말농장엔 사
우들의 모습이 드문드문했다.

“어젯밤에 영하 2도까지 내려간다고 해
서 무가 얼까봐 일부만 뽑고, 나머지는
고구마 줄기로 덮어놔어요.” 할머니의
걱정에 할아버지가 고구마 줄기를 한
아름 걷는다. 어느새 흙 위로 반쯤 상
반신을 빼죽빼죽 내민 무의 뽀얀 얼굴
이 드러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늦가을 세찬 바람
에 밀려오듯 울퉁불퉁한 농장 길을 뛰
어오는 손자 은찬이(9세)와 손녀 아린
이(6세)의 등장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아린이는 고사
리 같은 손으로 이랑에 심은 무의 반



이상을 할머니와 같이 뽑았단다. 이날
도 아린이는 오빠 은찬이와 함께 장갑
도 없이 덩석 무밭에 앉아 거침없이 맨
손으로 무를 뽑는다.

신영훈 과장은 “부모님과 한자리에 어
울려 아이들과 같이 흙을 만지고 채소
를 키우는 재미가 좋아요. 부모님들은
무료함을 달래고 아이들은 별레도 무
서워하지 않고 자연과 어울리고, 저도

채소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은찬이와 아린이의
수확을 도와주는 동안, 고부(姑婦)는
저녁 찬거리에 쓸 대파를 뿌리까지 다
정하게 뽑는다. 굳이 수다스럽지 않아
도 잘 통하는 이심전심의 모습이 보기
좋다.

할아버지는 “씨앗에서 싹으로, 조금씩

기운차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다”고 말한다. 주말농장을 경작하는 다른 사우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올해도 주말농장을 신청해서 온 가족이 틈나는 대로 교감하며 직접 채소를 기르고 싶다는 신 과장. 이들의 추억은 훗날에도 가족을 행복하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 같다. 10평 밭에 꼭 찬 3대의 행복한 모습이 연말 주말농장의 풍성한 결실로 따뜻하게 다가온다.

주말농장 새내기들의 쌈박한 채소 키우기

지난 여름, 유난히 가물어서 주말농장엔 물주기가 절실했던 때가 있었다. 사우들이 물뿌리개에 물을 길러 갈 때마다 물 길는 무거움과 피로감을 줄여주던 그 무엇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해바라기였다.

수조 옆에 자리 잡은 3번 밭의 주인공들이 실험 삼아 심었다는 이 해바라기가 더위와 가뭄이 무색하게도 잘 자라서 주말농장의 사진 모델이 되었다.

귀여운 해바라기 채소밭의 주인공은 바로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김동원 사우(42세)와 장기중 사우(36세). 이들은 채소밭에 하나하나 예쁜 이름표를 달아줄 정도로 깊은 애정을 쏟고 있었다. 김동원 사우가 경작지를 분양 받고, 같은 팀 동료인 장기중 사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텃밭을 돌봤단다.

처음엔 무조건 삼으로 땅을 파서 뒤집기만 하니, 주위의 사우들이 퇴비를 넣고 땅을 일구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단다.

이후로 두엄을 넣어 땅을 뒤집고, 씨앗

을 사며 종묘상 주인에게 농사지식을 물어보고, 주변 텃밭을 둘러보며 사우들에게 경작 경험담을 듣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채소농사를 시작했다.

맨땅에 돌을 골라내고, 씨앗을 심고, 잡초를 뽑고, 갖가지 채소를 심어서 관찰하고, 영양제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하며 이들은 봄, 여름, 가을이 지나 풍성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둥글둥글 결구가 된 통통한 배추, 아기자기 잎을 키우는 봄동과 파릇파릇한 무는 햇빛에 반짝반짝 윤기가 난다. 꽃상추는 이름값을 하며 자태를 뽐내고, 흙 위에 까만 비닐을 깔아 쑥쑥 심었다는 의성마늘까지 주인들의 넘치는 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김동원 사우는 “자주 들여다보며 자식처럼 신경 쓰고 부지런을 떨어야 채소도 잘 자라는 것 같다”며, “두 딸이 직접 손으로 명패를 써준 채소들이 대체적으로 잘 자라 기쁘다”고 함박 웃음을 짓는다.

또, 장기중 사우는 “주위 동료들이나 친구들 심지어 본가와 처가에도 손수



기른 채소를 가져다 드렸는데, 부지런하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조금 쑥스러웠다”고 이야기한다.

두 사우는 주말농장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이 힐링이 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회사의 힘든 일도 농사일에 집중하면 잊어버리게 되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위안이 됩니다. 흙과 자연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정성 들여 키운 채소는 건강도 맛도 좋아요.”

주말농장은 가족과 동료를 잇는 하나의 가교이자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내가 기른 무로 동치미나 총각김치를, 배추로 김장을 하는 두 사우의 겨울식탁은 젓가락이 바쁠 정도로 풍성할 것 같다.

취재 최선자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타임슬립하듯 떠나는 시간여행

기나긴 겨울방학이 한창이다. 아이들의 스케줄에 따라 꼼짝없이 매여있는 부모님과 돌아서면 습관처럼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여행을 떠나자.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을 선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손을 놀려 찾아낸 곳은 부산 초량이다.



부산 초량 이바구길

·주소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09번길 16

·모노레일 운영시간

하절기(6~9월) 오전 7시 ~ 오후 9시

동절기(10~5월) 오전 7시 ~ 오후 8시

·문의 051-467-0289

·안내 홈페이지(<http://www.2bagu.co.kr/>)

사람과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168계단

부산역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건너편에서부터 초량 이바구길이 시작된다.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라는 뜻인데, 부산의 근현대사에 얹혀있는 이야기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데서 '이바구길'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초량은 일제 강점기 때 부산항 개항을 시작으로 해방 후 6.25 전쟁 피난민들의 생활터전이었던 1950~60년대부터 1970~80년대의 산업 부흥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그 시절의 향수를 기억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초량교회와 초량초등학교 담장 갤러리를 둘러보면서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태극기 무늬의 바람개비로 꾸며진 계단이 이어지고, 그 위로 꽤 가파른 경사의 168계단이 나타난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렸을 이 계단은 산복도로에서 부산항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얼마 전에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계단



옆으로 모노레일이 설치되었는데, 이 작고 아담한 기체가 초량 이바구길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다. 알록달록한 외관이 눈길을 사로잡는 승강장과 선명한 빨간색이 돋보이는 모노레일은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기상상태에 따라 운행이 중단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선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모노레일 안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 이색적인 풍경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어느새 도착점에 다다르면 끝 지점에는 부산역과 부산항을 향해 탁 트인 광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전망대가 있는데, 낮에는 시원한 바다 경치를, 밤에는 빛나는 야경을 선사한다.

또, 골목길과 계단길 사이사이마다 감성 손 글씨가 멋스러운 캘리그래피 공방과 어린 시절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정감 어린 장난감 가게 등 소소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들이 많아 아이들을 유혹하며 시선을 오래도록 잡아 끈다.

초량 이바구길 숨은 보물 찾기

그 밖에도 168계단 중간쯤에 위치한 '김민부 전망대'에는 부산 동구 출신의 천재 시인 김민부를 기념하는 포토존과 함께 짝 막힌 가슴을 뽕 뚫어주는 듯한 그림 같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또, 배의 모양을 본떠 만든 '이바구 공작소'는 초량의 어제와 오늘을 담고 있는 문화 공간으로 투호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뿐만 아니라 옛날 고북 체험도 할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지역 어르신들이 직접 관리하고 계셔서 초량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산 증인이신 분들께 진짜 '이바구'를 듣는 행운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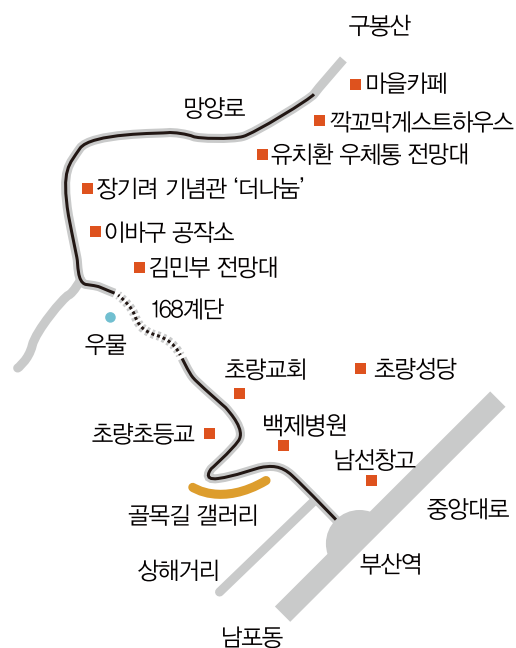
한편, 초량 이바구길의 끝에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관 '더 나눔' 센터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 분의 유일한 유품으로 남겨진 낡은 의사 가운과 청진기가 전시되었다. 장기려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알아보고, 숭고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어 교육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마 유치환 시인의 예술 세계와 문학 정신이 녹아있는 '유치환 우체통 전망대'에서는 엽서를 써서 보내면 1년 후에 배달되는 느린 우체통을 운영한다. 자녀들과 함께 즐거웠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며 1년 후에 추억의 메아리로 되돌아올 오늘의 시간을 기록해보아도 좋겠다.

이렇듯 초량 이바구길에는 모노레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들이 숨은 보물 찾기 처럼 구석구석 마련돼 있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골목길을 따라 '느림의 미학'으로 요약되는 이바구길을 한참 동안 천천히 걷다 보니 어디선가 생생한 '이바구'가 들려오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

아이들의 일기장 속에는 초량 이바구길에서의 시간과 경험이 어떤 재미와 의미로 채워지게 될까? 아이들의 순수한 시선으로 풍성하게 기록될 일기장을 몰래 엿볼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취재 최민경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이바구 공작소

부산 동구 망양로 486번길 14-13

김민부 전망대

부산 동구 영초윗길26번길 14

장기려 기념관 '더 나눔'

부산 동구 영초윗길 48 더나눔

유치환 우체통 전망대

부산 동구 망양로 580번길 2



겨울 극장가 강타! 스릴 만점 액션 판타지물의 대격돌

주만지 : 새로운 세계

장르 액션, 모험 | 개봉일 2018년 1월 3일 (수) | 러닝타임 118분
 감독 제이크 캐스단 | 출연 드웨인 존슨, 잭 블랙, 케빈 하트, 카렌 길런 등
 등급 12세 관람가

줄거리 “전설의 게임이 다시 시작된다!” 학교 창고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주만지’ 비디오 게임을 발견한 네 사람. 게임 버튼을 누르자 그만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만다.

거대한 몸집의 고고학자로 변한 공부벌레 스펜서, 슈퍼 여전사가 되어 버린 운동신경 제로 마사, 저질체력의 동물학 전문가가 된 예비 풋볼 선수 프리지, 중년의 지도 연구학 교수로 변해버린 쿤가 베서니까지.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선 먼저 게임 세계부터 구해야 한다! 네 사람, 자신의 아바타 능력을 살려 기상천외한 모험을 시작하는데...

볼거리 TOP 3

- 01 추억의 원작! 로빈 윌리엄스 대표작 <주만지>(1995)의 속편
- 02 황당한 설정!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아바타가 되어버린 주인공들
- 03 반가운 얼굴! 무한도전 ‘잭 형’으로 친숙한 ‘잭 블랙’의 영화 출연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간 10대 아이들의 현실 귀환을 그린 모험이 시작된다. 기발한 상상력의 영화 <주만지: 새로운 세계>는 2억 6천만달러의 흥행 수익을 낳으며 전세계의 사랑을 받은 영화 <주만지>(1995)의 속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편의 아날로그 감성에 독특한 아이디어와 실감나는 특수효과를 더해 게임 속 세상을 생생하게 구현했다.

스릴 넘치는 모험 속에서도 코믹 요소와 감동 엔딩까지 모두 잡으며 국내외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영화! 추운 겨울, <주만지: 새로운 세계>와 함께 추위를 화끈하게 물리쳐 보자.



새로 개봉하는 따끈한 신작 영화를
블로그 'hi,hi'와 현대예술관에서 만나보세요.



메이즈 러너 : 데스 큐어

장르 액션, SF, 스릴러 | 개봉일 2018년 1월 17일 (수) 예정
감독 웨스 볼 | 출연 딜런 오브라이언, 토마스 샹스터,
카야 스킨라리오, 이기홍 등

줄거리 “러너 vs 위키드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인류를 삼킨 바이러스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면역 유전자를 지닌 러너들을 미로에 가두고 실험해 온 악의 조직 ‘위키드’.
미로 탈출에 힘들게 성공한 러너들은 납치된 동료 민호를 구하기 위해 제 발로 ‘위키드’ 본부를 찾아 나서는데... 쫓고 쫓기는 끈질긴 한판 승부, 그 마지막 결말이 밝혀진다!

볼거리 TOP 3

- 01 최초 韓개봉! ‘메이즈 러너’, 대한민국의 1등 관객이 되어보자
- 02 최종 시리즈! 러너들의 마지막 사투를 담은 메이즈 러너 최종판
- 03 블록버스터! 2018년 포문을 여는 첫 번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 예매 및 문의 : 현대예술관 (www.hhiarts.co.kr / 1522-3331)



친절한 리뷰

2014년 <메이즈 러너> 개봉 이후 수많은 팬들을 탄생시킨 시리즈의 최종판이 올 1월에 개봉한다.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봉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인 만큼, 전작들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액션이 돋보인다. 딜런 오브라이언, 토마스 샹스터, 이기홍 등 전편에 출연한 주연 배우들이 그대로 합류해 작품의 몰입도를 한껏 더한다.

눈을 떼 수 없는 짜릿한 모험 속에서 소름 돋는 스릴을 느끼고 싶다면 <메이즈 러너 : 데스 큐어>와 함께 2018년을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

근대사 아픔 딛고, 다채로운 예술의 옷 입다!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위치한 강강이 마을은 근대 수리조선의 일번지로, 지금도 기계 소리가 마을 곳곳 울려 퍼지며 지난 날의 산증인이 되고 있다.

근대사의 아픈 상처와 산업화를 이끈 전사의 영광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마을을 찾아가 보았다.

근대 수리조선의 발상지

'강강이'는 낡은 선박의 녹과 조개껍데기 등속을 벗겨내기 위한 망치질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다. 거친 바닷바람과 싸우며 망치 하나로 나라 경제와 가정을 동시에 책임진 억척의 '부산 강강이 아지매' 또한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쓰여 왔다.

이 곳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정착하여 건설한 근대 수리조선의 효시인 '다나카 조선소'를 비롯해, 온갖 종류의 선박을 고치는 수리조선소가 들어서 있다.

선박기자재업체 및 기자재 수리업체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고물들을 취급하는 고물상까지 마을에 자리 잡아 마을 전체가 선박수리산업단지처럼 형성되어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때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요충지로 이용됐던 이곳은 일본 풍의 적산가옥들이 남아 있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 수리조선 테마길은 역사적 장소인 동시에 도심에서 선박이 건조되고 수리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이색공간이다.

'강강이' 일은 대부분 기계로 대체되었지만 지금도 주변에는 선박관련업체가 밀집해 있다. 켜켜이 쌓인 오래된 기름 냄새와 갓 칠한 페인트 냄새가 바람에 함께 실려 오는 골목길, 부품의 녹슨 부분을 제거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라인더와 망치질 소리.

그 옛날 선박의 녹겨풀을 한겹 벗겨낼 때마다 자식들 책상에



책 한 권, 밥상에 찬 하나 더 놓아 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부산 아지매들의 망치질엔 더 큰 힘이 들어갔으리라.

부산 옛 풍경에 이국 작가의 감각 더해

최근 강강이 마을은 독특한 산업풍경에 그림, 시화, 공연이 더해져 눈길을 사로잡는 예술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부산시의 '예술상상마을 공모'에서 강강이 마을이 첫 번째로 선정되어 문화예술형 도시로의 재생 작업이 한창이다.

부산의 옛 모습을 간직한 건물들 사이로 이국적인 풍경의 그림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자아낸다. 건물 외벽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는 국내 작가들을 비롯해 해외 유명 화가가 대거 참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소수영 작가가 공장과 창고에 독특한 문양의 그림을 그리는 '월 아트'를 선보인 데 이어 2017년에는 브라질 작가



데닐로 제 펠리토(Danilo Zeh Palito)가 3층 건물에 남미의 숲 속에 온 듯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독일 스트리트 화가 헨드릭 바이키르히(Hendrik Beikirch)의 초대형 작품 '우리 모두의 어머니(Mother of Everyone)'는 강강이 아지매들의 강인하고 고된 삶의 모습을 스프레이로 표현했는데, 4층 높이의 대동대교맨션 한 벽면을 장식하고 있어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한다. 대동대교맨션이 위치한 장소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이 운영했던 미국 스탠더드석유회사가, 6.25전쟁 때는 미군 보급창고가 들어선 곳으로, 1980년대에 선박부품업체가 들어서며 대교맨션이 세워져 역사적 장소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참여 작가와 함께 하는 마을 축제가 열렸다. 북 콘서트, 강강이 투어, 영화 관람 등 풍성한 이벤트가 진행됐는데, 특히 '작가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양다방'이 옛날 추억의 커피 맛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유명세를 타는 등 40년 동안 마을을 지킨 터줏대감 건물

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

한편, 강강이 마을은 '소음'이 주민들의 생계 그 자체가 되는 마을의 특징을 살려 마을의 다양한 소리를 수집,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강강이 소리지도'를 만들어, 실물 지도 상에 특정 지점을 선택하면 그 곳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라진 영도 나룻배를 복원하는 사업도 한창이다. 이 사업은 '바다관광택시'를 이용해 다나카조선소와 영도대교, 자갈치시장 등을 잇는 뱃길을 복원하는 것으로, 배를 타고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20분이 소요된다.

근대수리조선의 옛 모습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예술 마을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부산 강강이 마을의 앞으로가 기대된다.

취재 윤은숙 현대중공업 주부리포터

부산 '강강이 마을'

주소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1가 일대

“나만 바라보는 가족들 위해 온 몸 부서져도 참았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 약속 시간에 맞춰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

오전에 병원 간다고 했는데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몇 번의 휴대폰 연락에도 답이 없어 집전화로 걸어 보니 그제야 받는다. 반가운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선다.



만신창이 몸 이끌고, 도색 현장 찾아

류성필(59세) 씨가 불편한 다리를 끌며 현관문을 열어준다. 약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던 모양이라고 연신 미안해한다. 다리가 아프다며 길게 펴는 그의 양 발은 장마철 벽 곰팡이처럼 검은색으로 얼룩져 있었다. 발바닥은 당뇨로 염증 치료를 받았다고며 넓은 테이프가 붙어있다. 작은방 두 개, 부엌, 화장실, 싱크대 안 그릇들, 누런 벽지, 문틀 옆에 묻은 손자국들이 눈

에 들어왔다.

류성필 씨의 고향은 서울 영등포다. 그는 일찍이 서울에서 페인트 도색 기술을 익혀 일을 다녔다. 지방 공사를 맡으면서 그의 기술은 더욱 인정 받았다. 아파트 외벽이나 공장의 굴뚝, 크레인 도색 등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위험은 늘 따라다녔다. 위험한 만큼 한 달의 반만 일을 해도 직장인 월급보다 더 벌 수 있었다.



1981년에는 리비아 제철공장으로 해외 근무를 갔다. 힘든 여건이지만 열심히 일을 해 고생한 만큼의 수입이 생겼다. 그러던 중 1983년 불의의 추락 사고를 당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오래도록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꾸준한 치료로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회복되었지만, 그 속은 다치기 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류성필 씨에게는 자기만 바라보는 어머니와 남동생이 있었기에 어디든 나가서 다시 일을 해야만 했다. 높은 곳은 오르지 못하지만 낮은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무렵 결혼을 했다.

열심히 일한 대가는 아내에게 맡겨 두고, 몸이 좋지 않으니 빨리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고는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싸움이 잦아졌다.

아내에게 경제권을 맡긴 것을 후회하며 결국 큰 아이 9살, 작은 아이 6살 때 이혼을 하게 됐다. 두 아이와 어머니 그리고 술에 의존하던 동생까지 류성필 씨의 몫이 되었기에, 그는 다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작업 현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 16가지 약으로 견디는 삶

다친 곳이 한 번씩 아려올 때면 약을 먹었다. 그러다 당뇨가 심해져 길을 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당뇨는 합병증을 몰고 와 2008년부터는 투석을 받아야 했다. 일주일에 4번이나 투석을 해 그의 두 팔은 멍 투성이가 되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을 외면 할 수가 없었던 류성필 씨는 몸이 아플 때면 진통제 몇 알을 삼키고 다시 일을 했다고 한다. 2015년에는 대퇴부와 허벅지에 통증이 심하게 와, 인조 뼈를 넣는 수술을 했다. 수술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지금

도 고통이 계속 돼 약 없이는 하루도 살아 갈 수 없다. 당뇨의 합병증으로 눈은 점점 흐릿해지고 몸도 점점 굳어져 간단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구석이 없다.

류성필 씨는 현재 신체장애 2급, 지체장애 6급으로 일주일에 4번씩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매일 당뇨약을 먹고, 통증이 심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다. 그렇게 먹는 약이 하루 16가지가 되는데,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밥 먹는 것도 힘이 든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류성필 씨는 실직 상태인 미혼의 아들(28세)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남동생(53세)과 함께 살고 있다.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는 류성필 씨의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인 동생의 생계급여가 전부다. “다행히 딸은 결혼했는데 아들이 걱정이에요. 빨리 취직이 돼야 할텐데...”

요즘 류성필 씨는 목발을 이용해 보행을 하고 있는데, 힘이 든다는 것이 느껴질 때면 눈앞이 흐릿해 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병원을 오가는 교통비, 약 값, 월세가 시린 속살을 파고든다. 성하지 못한 몸이 매서운 바람에 더욱 움츠러 든다. 집안으로 들어 왔을 때 보이던 문틀 옆 까만 손자국이, 묵묵히 이들을 지켜보며 차가운 바람을 마주했을 벽이, 너털너털 만신창이가 되어가면서도 가족들에게 온 몸을 내어준 류성필 씨의 모습과 겹쳐진다.

이들 가족이 무사히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으로 추운 겨울날 그 무엇보다 간절한, 따뜻한 문풍지가 되어 주자.

취재 김숙희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도움계좌

새마을금고 9003-2259-6000-4 (예금주 류성필)

40~50대부터 정기 내시경 검사, 조기 발견이 최선!

대장 용종은 점막이 있는 곳 어디에든 생길 수 있는 대장암의 ‘씨앗’이다.
작지만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될 대장 용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대장 용종은 어떤 질병인가요?

대장 용종이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의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는 3명 중의 1명 꼴로 용종이 발견될 만큼 흔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이습치의 증가로 인해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왜 발생하나요?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지방 식이, 저섬유질 식사, 40세 이상, 대장 용종과 암의 개인적 병력, 유전성 대장암 가족력, 만성 염증성 장질환의 오랜 병력 등이 대장 용종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용종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용종은 양성이지만 그대로 방치해 두면 용종의 성분에 따라 악성 종양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조직학적으로 과형성성 용종, 염증성 용종, 선종성 용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선종성 용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숫자가 많고, 크기가 클수록 악성 종양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대장 용종이 의심되는 증상은 무엇인가요?

드물게 출혈, 점액 분비, 장 기능 변화, 복통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증상이 없고 대장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고위험군의 경우는 40대,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라면 50대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대장 용종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대장 검사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장 용종 절제술을 시행하여 발견된 용종을 잘라냅니다. 용종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겸자'라고 불리는 집게를 사용하여 용종을 잘라내는 방법과 특수금속으로 된 올가미를 사용하여 용종을 잡은 후 전기를 통과시켜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종이 크고 넓적하게 대장벽에 붙어 있는 경우엔 주사침을 이용하여 식염수를 주입한 후 올가미로 절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1) 용종이 매우 커서 내시경 절제 후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높거나 2) 위치상 도저히 내시경을 통해서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3) 용종의 일정 부분 이상이 암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복강경을 통해 장 절제술을 시행합니다.

대장 용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대장암이나 대장암의 전구 병변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 검사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이외에도 대장 조영 검사 및 대변 잠혈 반응검사 등이 있습니다.

대장 조영 검사는 대장에 조영제를 넣고 X-ray를 찍으면서 용종 등의 병변 유무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또, 대변 잠혈 반응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양의 출혈을 검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대장 내시경을 이용하여 전체 대장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장 용종 발견을 위해 얼마나 자주 정기 검진을 해야 하나요?

얼마 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대장 내시경 선별검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대장 용종이 발견되었던 환자, 염증성 장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인 경우 보통 40세부터,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50세부터 5년에 한번씩 검사 받을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는 떼어낸 용종의 조직 검사 결과와 용종의 크기,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선종을 절제한 경우 3년 정도 후에 재검사를 시행할 것이 권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항혈전제 복용 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떼어내는데 문제가 없나요?

요즘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혈액이 잘 굳지 않게 만드는 아스피린, 와파린, 플라빅스, 플레탈 등의 항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분들보다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최근 가이드라인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스피린 정도는 약을 중단하지 않고, 용종을 제거해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이나 뇌혈관의 상태에 따라 약을 중단할지, 중단한다면 며칠이나 중단할지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글 정석원 교수(울산대병원 소화기내과)

“행복의 지름길? ‘조건’보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사우 여러분 모두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하려면 돈도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좀 더 높은 지위나 학벌을 갖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행복’은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마음’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셈이죠. 행복하기 위해 나의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행복 훈련’을 시작합시다!

01 목표 달성보다 과정에 집중해야

새해가 되면 우리는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면 기쁨도 잠시, 오히려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에 조금해집니다.

이때 목표 달성 여부보다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들에 집중해보면, 오랫동안 자신감 있는 자신을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맞는 목표인지 고민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할 수 있는지 체크하며 계획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며, 스스로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생생한 자신의 모습이 오랫동안 자신을 뿌듯하게 합니다.

02 부족함 채우기보다 강점을 살려야

우리는 '완벽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노력하며 내가 바라는 것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굳이 부족함을 채워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고 더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강점을 살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03 비교와 가혹한 자기평가는 금물

남과 비교하고 자신에 대해 스스로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수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이나 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정작 맞지 않는 옷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시선에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을 믿고 남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면 행복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04 자기 존중과 건강한 인간관계 필요

사람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속에서 서로 공감하고 사랑을 느끼며 서로의 가치를 확인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

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사람만 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는 늘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이가 진정 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단단하게 발을 붙이고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의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이것이 행복의 바탕이 됩니다.

05 일상 속 숨은 의미를 찾는 것도 행복의 지름길

사람들은 힘든 줄 알면서도 남을 돕기도 하고, 고통스런 줄 알면서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도전합니다. 굳이 필요 없는 도전을 하면서 비지팜을 흘리고 견디며 행복해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편안하고 쉬는 것만이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인가에 가슴이 뛰고 벅찬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단단히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도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열심히 무엇인가에 도전하고 자신을 계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도전할 때도 인간관계에서 내가 없을 때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도 즐거운 느낌이지만, 다른 일도 더 잘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엄격해야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바꿔 보세요.

스스로를 격려하며 느끼는 행복은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긍정적 관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멋지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지금의 잔잔한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그 행복의 힘으로 2018년 올해는 더욱 활기찬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글 김명현 상담사(현대미포조선 마음정원)

LNG추진선 설명회 개최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선박 기술을 앞세워 LNG추진선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2월 15일 부산 현대글로벌서비스 본사에서 폴라리스쉬핑, SK해운, 대한해운 등 국내 8개 선사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18만톤급과 25만톤급 LNG추진 벌크선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가졌다.

LNG추진 벌크선은 기존 선박보다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각각 99%, 85%, 25% 이상씩 줄여,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미 지난해 다수의 LNG추진선을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수성과에 역대 최대 포상

현대중공업이 12월 12일 세계 최초로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상용화에 성공한 김도윤 선임연구원, 김현수 수석연구원, 권영우 과장, 김형주 과장, 공찬욱 과장 등 5명에게 역대 최대인 총 5천7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선박용 대형엔진에서 고온, 고압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암모니아 촉매로 분해해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장치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9월까지 총 57기의 고압용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수주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기술력 우위를 확인했다.

ITER TFCS 1호기 선적

현대중공업이 12월 26일 플랜트 설비공장에서 '초전도 자석구조물(TFCS) 1호기 인도식'을 가졌다.

이 구조물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서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초전도 자석을 보호하는 장치로 폭 9미터, 높이 16.5미터, 총 중량 180톤에 달한다.

현대중공업은 ITER국제기구로부터 총 9기의 자석구조물을 수주해 지난 2015년 1월 착공한 지 3년 만에 1호기를 성공적으로 인도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8기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ITER프로젝트는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최종 증명하기 위해 핵융합실험로를 건설하는 국제 협력 연구개발 사업이다.



27년째 사랑의 김장 담그기

현대중공업이 12월 6일 27년째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갖고, 3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현주,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 어머니회, 현종직무서클연합회, 현종여사원회 주관으로 실시됐다.

김장 비용은 지난해 11월 사내 체육관에서 열린 '사랑의 기증품 판매전' 수익금으로 마련했고, 현대학원 어린이자연학습원에서 직접 기른 유기농 배추 7천포기와 무 3천개, 지역 농가에서 구입한 배추 3천포기가 사용됐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지역의 장애인재활시설,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사회 복지시설 50곳과 소외계층 1천300여가구에 전달됐다.

연말 이웃사랑 나눔 활동 풍성

현대중공업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스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다.

현대중공업은 12월 19일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사우들이 모은 금연기금 350만원을 기탁했다.

또 12월 21일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 80명에게 총 640만원 상당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다.

현대건설기계도 전 임직원이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통해 마련한 연탄 2천 500장을 충북 음성군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했다.



일렉트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현대일렉트릭이 12월 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현장의 품질혁신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7 현대일렉트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 '변압기 중신실린더/스페이서 고정방법 개선'으로 연간 2억 7천여만원을 절감한 변압기생산부 중신7팀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고, 고압차단기생산부 총조립3팀이 은상, 회전기생산부 조립5팀과 배전반생산부 운영기술팀이 각각 동상을 받았다.

또 현대일렉트릭은 12월 21일 용인 R&D본부에서 '4분기 연구개발 아이디어 발표대회'를 열고, 제품 성능 개선 및 원가 절감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건설기계, 마트에 굴삭기 전시

현대건설기계가 대형 마트에서 굴삭기를 전시·판매하는 이색 마케팅을 펼쳤다.

건설기계는 12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에서 17톤~3.5톤급 미니 굴삭기 4대를 전시하고, 굴삭기 탑승 및 기념촬영, 기념품 증정 등의 이벤트도 진행했다.

미니굴삭기는 은퇴를 앞두고 농장 전원주택 등을 운영하려는 베이비부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글로벌서비스, ISO 9001 획득

현대글로벌서비스가 11월 30일 국제인증기관인 DNV-GL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인증으로, 품질경영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제 3자 인증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전 세계 선박 서비스 및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59

2.5D 설계 기술, 첨단기술 선정

현대미포조선의 2.5D 철의장 모델링 구현기술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첨단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번에 인정받은 설계기술은 2D 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객체는 3D로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2D와 3D의 장점을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미포조선은 이 기술을 통해 작업 편의성과 출력물의 정밀성을 더욱 향상시켜 설계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선박 수주과정에서도 기술력을 더욱 과시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첨단기술 및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집약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기술과 제품임을 보증하는 제도로, 국책과제 가점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팩스(RO-PAX) 본격 건조

현대미포조선이 12월 18일 4도크에서 3만1천톤급 로팩스(Ro-Pax)선에 대한 용골거치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조작업에 돌입했다.

현대미포조선이 지난해 7월 '위동항운'사로부터 수주한 이 선박은 720여명의 승객과 40피트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 140여대를 동시에 싣고, 최고 25노트(knot)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길이 199.1미터, 너비 27미터, 높이 32미터의 제원을 갖추게 될 이 선박은 내년 4월과 9월에 각각 진수, 인도돼 인천과 중국 청도 간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로팩스선이 본격 건조됨에 따라 일감부족으로 4개월간 일시 가동 중단됐던 4도크도 재가동에 들어갔다.

직원 5명 대외 수상 '영예'

현대미포조선 직원들이 최근 사외에서 잇달아 수상의 영광을 안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자재구매팀 이준우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선체조립부 권황청용 팀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또, 앞서 12월 1일에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 14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기본설계부 김찬일 부장과 의장부 장순식 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선실생산부 김광주 반장이 '우수조선해양인상'을 각각 수상했다.



연말 불우이웃 돕기 이어져

지난 연말 소외된 이웃을 위한 현대미포조선 직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현대미포조선 팀장협의회(회장: 고중석)는 12월 8일 울산 동구 방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생필품을 비롯해 세탁기, 이불, 수납장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 12월 6일에는 반장협의회(회장: 박성호) 회원들도 울산 참사랑의 집을 찾아 가습기 6대 등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이밖에도 사외 협력사 모임인 현미회(회장: 손시학)는 12월 7일 현대중공업 인재개발원에서 그룹 협력사협의회와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갖고,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총 2천3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 용골거치

현대삼호중공업은 15만7천톤급 원유운반선(S910)의 용골거치식을 지난 18일 1버스(BERTH)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회사와 유로나브 선주사, 로이드 선급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성공적인 건조를 기원했다.

이 선박은 길이 277미터, 폭 48미터, 깊이 23.1미터의 제원을 갖췄으며, 최고 14.6노트(시속 2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 선박은 4척의 시리즈 선박(S909~912) 중 두 번째로 올해 2월에 진수를 거쳐 4월에 최종 인도될 예정이다.



회사를 빛낸 5명의 영예로운 수상

현대삼호중공업 사무 5명이 사외에서 잇달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2월 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제 14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에서 조선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재욱 부장과 홍종욱 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김석환 팀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지난 12월 12일 호텔 현대에서 열린 '제 54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관식 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영환 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각각 받았다.

노사, 급여 우수리 모아 지역사회 봉사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임직원들의 급여 우수리를 모아 기부 활동을 전개해 연말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했다.

노사는 지난 12월 12일 현대삼호중공업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인 소림학교에서 사랑의 우수리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급식봉사활동과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이날 행사에는 윤문균 사장과 노동조합 손형림 지회장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임직원들의 참여로 천원 미만의 끝전을 모아 급여 우수리 봉사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년 노사가 기금 활용 방안을 협의해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기부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연말 제안왕 시상식

현대삼호중공업의 2017년 연말 제안왕 시상식이 지난 12월 15일 본관 1층 HS-POPS 활동 추진실에서 열렸다.

박문용 반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제안활동 6차수 동안 전 차수마다 20건 이상의 제안을 꾸준히 제출해 'HS-POPS 활동 제안왕'에 선정됐다. 문철원 과장은 '2017년 제안 유효효과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 과장의 1년간 제안활동 유효효과 합계 금액은 2위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16억원에 달했고, 방호근 반장은 150건의 제안을 제출해 11월 제안왕에 선정됐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HS-POPS 활동 제안왕과 제안 유효효과상 수상자에게는 1등짜리 순금열쇠 상패가, 11월 제안왕에게는 1등짜리 순금카드가 수여됐다.

현대오일뱅크

일일 산타 봉사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사장: 남익현)이 12월 18일 연말을 맞아, 서울사무소와 대산공장에서 지난 한해 동안 급여 1% 나눔에 동참한 임직원들과 함께 '일일 산타 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300여명의 임직원들은 지역 아이들로부터 접수된 소원카드에 일일이 답장을 쓰고 선물들을 포장했다. 앞서 재단은 한달 간 전국 31개 지역아동센터 1천명의 아이들에게 직접 소원카드를 받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한편, 재단은 임직원들이 직접 포장한 선물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고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열어 지역 아이들과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현대힘스

연탄 나눔 봉사

현대힘스(대표이사: 오세광) 직원들이 11월 25일 울산 북구 차일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대힘스는 본사와 냉천 봉사회 회원들을 주축으로 총 26명의 봉사단을 구성했으며, 지역 소외계층 2세대를 찾아 총 700장의 연탄을 한 장씩 날라 배달했다. 직접 방문하지 못한 4세대에도 1천400장의 연탄을 추가로 지원하며, 불우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한편, 현대힘스는 이번 봉사를 계기로 후원 및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힘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

생체 폐이식 국내 첫 성공

서울아산병원(병원장: 이상도) 폐이식팀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체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12월 14일 밝혔다.

생체 폐이식은 뇌사자의 폐를 기증받던 기존 수술과 달리 살아있는 기증자 두 명의 폐 일부를 떼어 말기 폐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으로 기증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안전한 수술 방법이다.

이번에 수술 받은 환자인 오화진 씨(女)는 특별한 이유 없이 폐동맥의 혈압이 높아져 심장마비를 겪은 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고, 10월 21일 환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폐를 성공적으로 이식 받아 39일 만에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울산대학교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에서 2회 연속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고 12월 12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 비율, 30일 내 사망률, 입원일수 등 각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점수 95.6점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적정성평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80개 병원, 3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의리기관의 심장수술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아산나눔재단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식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이경숙)이 12월 2일 서울 신당동 사옥에서 6기 수강생 30명을 비롯해 교수진, 재단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아산나눔재단은 캡스톤 프로젝트(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한 팀에게 최우수상을, 전체 아카데미 과정을 훌륭히 소화한 3명에게 '프론티어상'을 각각 수여했다.

한편,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는 아산나눔재단이 현직 비영리 활동가를 대상으로 경영 능력과 리더십,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교육이 진행됐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춘해보건대 상호발전 협약

울산과학기술대학교(총장: 허정석)가 12월 4일 동부캠퍼스 행정본관에서 허정석 총장, 춘해보건대학교 김희진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춘해보건대학교와 '대학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양 대학은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연계 운영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 출판물 및 정보 상호 교환 △교육시설물의 상호 이용 △국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호 지원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나가기로 합의했다.

울산과학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춘해보건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시스템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울산현대호'

첫 특명은 “너! 내 동료가 돼라!”

1997년 연재를 시작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원피스'.

바다와 선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만화는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명대사로도 유명하다.

그 중 주인공이 모험을 함께 할 동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외치는 '너! 내 동료가 돼라!'는 대사는 광고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만큼 유명하다.

최고가 되기 위해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울산현대호'가 겨울 이적 시장을 맞아 대대적인 선수 영입에 나섰다. 그 시작은 '포스트 이영표' 박주호다.



깜짝 영입 '박주호',

울산의 축구에 스피드와 견고함 더할 최상의 카드

왼쪽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할 수 있는 박주호는 유럽리그 진출의 모범적인 코스를 밟은 선수 중 한 명이다.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 올린 그는 유럽의 대표 명문 구단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 입성하기도 했다.

2008년 일본 J2리그 '미토 홀리호크'에 입단해 프로생활을

시작한 박주호는 이후 '가시마 앤틀러스'로 이적해 2009년 리그 우승을 견인했으며, '주빌로 이와타'를 거쳐 2011년 스위스 리그 최강팀인 'FC 바젤'에 입단했다.

데뷔 시즌부터 팀의 주전으로 자리매김한 박주호는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등 강팀들과의 대결이 많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인지도를 높였다. 박주호는 FC 바젤의 리그 연속 우승을 이끄는 등 스위스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2013년 세계 4대 리그 중 하나인 독일 분데

박주호 프로필

생년월일 1987년 1월 16일

포지션 DF(왼쪽 풀백), MF(수비형 미드필더)

신장/체격 176cm/73kg

출신학교 숭실대학교

개인 기록

- 2008~2009 미토 홀리호크(일본)
- 2009~2010 가시마 앤틀러스(일본)
- 2010~2011 주빌로 이와타(일본)
- 2011~2013 FC바젤(스위스)
- 2013~2015 1.FSV마인츠(독일)
- 2015~2017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대표팀 기록

- 국가대표
- A매치 32경기 출전
- 2014 브라질월드컵
- 2015 호주 아시안컵(준우승)
- 아시안게임 대표
- 2014 인천아시안게임(우승)



스리기에 진출했다.

‘1.FSV 마인츠에 입단한 박주호는 팀 동료인 구자철과 함께 뛰며 팀의 핵심 멤버로 성장했고, 2013, 2014시즌에는 분데스리가 드림팀 왼쪽 수비수 부문 최종 후보 3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5년 세계적인 구단인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박주호는 그곳에서 세 시즌을 보낸 후 울산으로 화려한 국내 복귀를 알렸다.

한편, 박주호는 태극마크를 달고 뛰기도 했다. 총 32경기의 A매치에 출전한 박주호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발탁되어 대회에 참가했으며,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선 한국의 준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아울러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전 경기를 출전하며 한국의 우승을 이끌기도 했다.

박주호가 울산에 합류함에 따라 김도훈 감독의 전술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전망이다. 활동량이 많고 왼쪽 풀백뿐만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박주호의 멀티플레이 능력은 빠르고 강한 김도훈식 ‘철퇴 축구’에 제격이기 때문이다.

수비진을 보호하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공수의 유기적인 흐름을 잡아줄 박주호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고의 동료를 구하기 위한 울산의 움직임은 오는 2월까지 계속 될 예정이다. ‘울산현대호’에 승선할 다음 선수는 누가 될까? “네! 내 동료가 돼라!”는 울산의 외침에 팬들은 그 어느 해보다 설레는 저울을 보내고 있다.

글 박종민 사원(울산현대축구단 팬&미디어팀)

박주호 선수와의 일문일답

Q. 입단 소감은?

A. 1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 잘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다. 팀의 좋은 성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울산에 온 이유는?

A. 울산은 K리그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이다. 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개인적인 타이밍도 잘 맞았다.

Q. K리그는 처음인데?

A. K리그는 아시아에서 가장 압박이 강한 리그다. 직접 경기를 뛰며 리그 특성을 빨리 파악하고 팀에 녹아 들도록 노력하겠다.

Q. 팀에서의 역할은?

A. 나 역시 많은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배우고 도전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외리그에서 터득한 운동적인 부분이나 경험적인 부분 등 팀 동료 및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아낌없이 도움을 주겠다.

Q. 울산 팬들에게 한마디!

A. 지난해 울산이 리그와 FA컵에서는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시아챔피언스리그는 아쉬움이 컸다. 올해는 잘 준비해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목표다. 팬들의 기대감이 큰 것을 알고 있다. 개인이 아닌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경기장을 찾아 응원해주신다면 울산은 경기력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



“매력 가득한 프랑스 자수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작은 것에 집중하고 무언가 만들어 내는 일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따뜻한 차 한잔과 함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시간.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생각이 차분히 정리되기도 하고 잊고 싶은 일이 지워지기도 한다.

그렇게 자수 여행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성취감과 함께 스스로에게 소중한 선물이 된다.





다채로운 색으로 표현하는 나만의 생활소품

특별한 창의성과 미적 감각 없이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프랑스 자수가 많은 사람들의 취미와 힐링으로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러한 특별함이 없어도 나만의 개성을 담아 세상에 하나뿐인 소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자수는 서양 자수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프랑스가 자수 기법이 가장 발전하였기 때문이란다. 어둡이 내려앉은 시각, 한마음회관 3층 강의실에서 프랑스 자수의 매력에 푹 빠져 열심히 수를 놓고 있는 수강생들을 만나보았다.

바쁜 직장생활을 하며 퇴근 후 자수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눈과 손은 열심히 수를 놓으면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피곤한 기색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하다.

우연히 서점에서 프랑스 자수에 관한 책을 보고 그 매력에 빠져 수강을 시작했다는 김연채(31세, 동구 동부동) 씨는 이날로 4회째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재 프랑스 자수의 기본적인 스티치 기법을 배우고 있는데, 새로운 기법을 배울 때마다 그 재미가 쏠쏠하다고 전한다.

김연채 씨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자수에 딱 맞는 것 같다”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만의 생활소품을 가질 수 있는 점이 참 좋다”고 말을 잇는다.

또, 사내 오피스에서 강좌 홍보를 보고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김지은(31세, 현대중공업 해양배관설계부) 사우는 4개월만에 이미 티 매트(Tea Mat/티포트 밑에 깔아 찻물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깔개)와 액자를 완성했다. 지금은 카드지갑을 만들기 위해 꽃바구니 자수를 놓고 있다며 분주히 손을 놀린다. 꽃바구니 자수의 색감이 아주 예쁘고, 모양이 앙증맞다.

초보자를 위한 프랑스 자수의 재료와 기법

프랑스 자수는 비교적 단출한 재료로 시작할 수 있다. 자수 원단, 실, 바늘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몇 가지를 더 추가하면 천을 팽팽하게 당길 수 있는 수틀과 수성펜, 쪽가위 등이 필요하다.

프랑스 자수를 놓을 때 사용하는 실은 십자수를 놓을 때 사

용하는 실과 같고, 60센티미터 정도로 잘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너무 짧으면 실을 자주 갈아줘야 해서 불편하고, 너무 길면 실이 헤져 자수의 모양이 예쁘지 않다고 한다. 자수 실은 모두 6겹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2~3겹을 빼내어 사용한다.

열십(+)자 형태로 수를 놓는 십자수와는 달리 프랑스 자수의 스티치 기법은 200여가지가 넘는다. 처음 자수를 배우는 초보자는 다양한 스티치 중 가장 기본적이고 많이 쓰이는 러닝 스티치(Running Stitch), 스트레이트 스티치(Straight Stitch), 아웃라인 스티치(Outline Stitch), 프렌치넛 스티치(Frenchknot Stitch) 등을 배운다.

러닝 스티치는 안팎의 땀 모양이 같도록 고르게 꿰매는 기법이고, 스트레이트 스티치는 직선으로 수놓는 방법이다. 아웃라인 스티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땀이 겹치도록 수놓는 기법으로 윤곽이나 선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또, 프렌치넛 스티치는 씨앗이나 열매 등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4주에 걸쳐 기본 스티치 기법을 배우고 나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장식품은 물론 손수건이나 파우치 등을 만들 수 있다.

한편, 오래 자수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을 예상한다. 하지만 유로피안 프랑스 자수를 맡고 있는 강사는 이아랑(30세) 씨로 젊고 유쾌하다. 이아랑 강사는 자수 공예가이신 어머니의 가업을 잇듯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보고 배운 프랑스 자수가 자신의 직업이 되었다고 말한다.

평범한 예코백이 자수를 만나 특별한 가방으로 태어난다. 직접 수를 놓은 원단이 푹푹 실용소품으로 만들어져 즐거움이 커진다. 베테랑 강사와 함께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원한다면, 지금 바로 프랑스 자수의 세계로 떠나자!

취재 정은주 현대중공업 주부리porter

유로피안 프랑스 자수

장소 한마음회관 3층 2강의실

시간 월요일 저녁 7시~ 8시 30분

비용 수강료 10만5천원(3개월) / 재료비 별도





유병길 부장

현대중공업 조선설계운영부

생(生)과 사(死), 그 사이 病

제목이 기분 나쁘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물론 그 경우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기에 충분한 이야기거리가 된다. 마치 사랑을 소재로 하여 수많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펼쳐지는 것처럼 말이다.

지난 9월 말, 나는 신탄진에 있는 보훈병원으로 급히 갔다. 아버지의 실사가 멈추지 않고 급기야 탈수증세를 보여 급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침 토요일이라 당직의사 밖에 없는 지라, 응급차로 을지대학교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입원치료 후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하셨는데, 하룻밤이 지난 후 손발의 마비가 오기 시작하여 다시 119 구급차를 요청하여 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이동하였다.

이틀 후 신경과 과장의 진단으로는 '갈랭바레 증후군'이 의심 된다면서 먼저 글로불린 투약을 하였고, 뇌척수액 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병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환자실을 왕복하는 등 위험한 시기가 이어졌고, 40일이 넘어서야 회복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마비로 굳어진 손발의 재활 치료는 병원노조의 파업으로 제대로 받기가 어려웠다.

더구나 아버지의 몸무게가 10킬로그램 이상 줄었으니 근육도 줄고 힘도 없고 참 난

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장기간의 치료로 긴 시간이 지나야 회복 될 것이라는 의사의 말에 더욱 힘이 빠지게 되었으나 별 수가 없었다.

10만명 당 2명 정도가 발생하는 희귀병, 그것도 30~40대의 젊은이에게 나타난다는 병이 아버지의 연세 88에 찾아온 것은 단지 운이 나빴던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아직도 아버지는 병석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회복이 늦는 것이 안타깝고 속상하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는 상태로 계실 때는 정말 큰 일이 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 같았다. 잠시 눈을 뜨셔서 몇 말씀 하실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던 것은 그저 감사한 마음이 앞선 탓이었을 것이다. 한갑 넘은 아들이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울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웰빙(Well-being)을 요즘은 웰다잉(Well-dying)이라고 해석한다. 상반된 두 단어가 결국 의미상 같다는 뜻일 것이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것이리라. 음식을 가려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정신건강까지도 바르게 유지해야 웰다잉을 할 수 있다.

생명체는 누구나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기 마련이다. 병은 환영하지 않는데도 찾아오니 병이 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도 소용 없을 것이다. 비록 못 오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좀 더 천천히 오도록 몸과 마음을 건강히 만들어 가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아버지께서 희귀병과 투병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있음과 죽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해 본다.

의사 선생님 그리고 119 요원에게 감사드리며 이만 글을 줄인다.



“나와 가족, 회사를 되돌아본 소중한 시간”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이렇게 장기간 쉰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다. 추수시기를 맞아 시골에서 한창 바쁘실 홀어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1차수로 휴가를 정했다.

평소에는 어머니를 돕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번이 효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고향으로 향했다.

넓은 평야지대에 펼쳐진 고향의 황금빛 들판은 마음을 풍성하게 해줬고, 어린 시절의 추억 속으로 데려가 주었다.

어릴 적 추수 때가 되면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얻기 위해 하나의 벼 이상도 소중하게 다뤘었다. 추수한 벼를 햇볕에 말리기 위해 마당 앞에 펼쳐 놓으면 마음까지 넉넉해지곤 했다.

이제는 자동 탈곡기와 건조기가 가을걷이를 대신해줘 몸이 편해졌지만, 쌀 한 톨이라도 건지겠다는 농부의 마음은 좀 희미해진 느낌이다.

어쩌면 우리는 변화의 물결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모른다. 변화를 모르면 경쟁사회에서 도태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현재 우리 회사를 비롯한 국내 조선소들은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여기서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회사 가족 모두의 이름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일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 유급 휴직으로 얻은 긴 여가시간이 마냥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떨 수는 없겠지만, 나 스스로 품질, 안

전, 납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영업맨 못지 않게 수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유급 휴직은 나를 되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됐다. 지금껏 앞만 보고 뛰었지 뒤를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 같다.

이번 유급휴직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그동안 누적된 피로를 풀고 몸을 건강하게 단련시키는 한편, 좀 더 멋진 남편, 좀 더 나은 아빠가 되기 위해 가족에 봉사하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나름 의미 있게 보냈다고 자평해본다.



서환주 반장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립부 탑재팀





김남호 씨

현대중공업 프로펠라생산부
김영기 가장 아들

“아버지, 정년퇴임 축하드립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젊은 부부가 고향을 떠납니다. 지도에도 표기되지 않을 만큼 외진 마을에서 손가락이랑 옷 몇 벌 든 짐 한 상자를 들고 갓난 아기를 업고 말이지요.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도착한 남쪽 땅, 울산.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였고, 여자는 어머니로서 어린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을 돌보면서 낯선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린 자녀들과 귀여운 손자, 손녀가 이 남자의 마지막 퇴근길을 축하해주기 위해 회사 정문에서 기다릴 거란 사실을 예상했을까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삶의 주인공이 바로 저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회사생활을 해오신 아버지께서 이제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솔직히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했던 근무지를 영원히 떠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지 말이지요.

장마로 억수같이 비가 내릴 때도, 땀별이 내리쬐던 날에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날에도, 딸이 사위될 남편감을 데려오던 날에도 아버지는 근무지에 계셨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많이 놀아주지 않으셔서 섭섭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묵묵히 보여주신 성실함과 부지런함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11년간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당시에도요, 자식을 올바르게 키워내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시민이고, 좋은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좋은 시민이고,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평범한 일상에 충실하면서도 이 땅에 꿈을 실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게 영웅이십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저도 이 사회의 좋은 시민, 좋은 선생님 그리고 작은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따라 걸을 수 있는 길을 먼저 걸어 가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 헌신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해준 현대중공업에 그리고 함께 해주신 동료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유산’을 읽고

이 소설은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찰스 디킨스가 1861년에 완성했다.

주인공 핍의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 ‘청년기 런던에서의 신사 생활’ 그리고 ‘성년이 된 후 은인과 의 만남을 계기로 정신적 각성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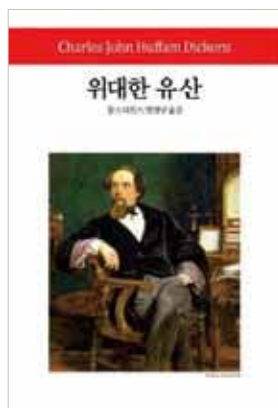
내용 면에서는 한 인물의 성장 과정을 그린다. 순진한 시골 소년 핍은 ‘신사’가 되고 싶은

갈망을 품은 채 매형인 대장장이 ‘조’의 도제로 불만스러운 삶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그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와 원하던 신분 상승을 하고 곧 런던으로 가서 신사교육을 받게 된다.

그동안, 그는 속물적이고 낭비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괴로움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에 만난 죄수 ‘매그위치’의 등장으로 숨겨진 행운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로 인해 충격과 실망과 좌절에 빠진다. 하지만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그는 자기 각성에 이르고, 마침내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간다.

디킨스는 주인공 핍의 성장 과정을 통해 신분 상승의 욕망과 사랑 그리고 인간성의 문제를 다루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한다.

핍의 성장 이야기에서 신사와 인간성의 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에스텔러’에 대한 핍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다.



자신을 경멸하는 부잣집 소녀 에스텔러에게 느끼는 수치심과 연모의 감정은 사춘기 소년에게 싹트는 묘한 사랑의 감정과 열등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에스텔러의 냉정함에 격게 되는 핍의 질투와 빈민과 고뇌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에스텔러에게 빠져드는 비이성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를

설득력 있게 잘 묘사했다.

또한 디킨스는 이 소설에서 ‘신사’라는 것은 그 본래의 긍정적 요소를 잃어버리고 오직 물질과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편협한 신분 개념임을 비판하고 있다.

매그위치와의 재회를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점차 도덕성을 회복해 가는 핍. 이 각성과 변화의 과정은 매그위치의 탈출을 도와주는 모습, 탈출에 실패한 매그위치가 재판을 받고 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핍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결국 핍은 자신이 부끄럽게 여겼던 대장장이 조는 물론이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죄수 매그위치까지도 사실은 자신보다 오히려 나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한 개인의 성장 이야기를 넘어서 폭넓은 사회적·심리적 복합성을 깊이 있게 나타낸 훌륭한 소설을 사우 여러분도 접해 보시길 바란다.



권연수 씨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지원팀
김경천 대리 부인



박지훈 차장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구매팀

동료 얼굴 그려주기

어느새 40대 초반을 넘어선 나는 지금 하지 않으면 시간이 흘러 세상을 떠날때 후회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에 버킷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해외 오지 여행, 자전거 전국 일주, 악기 배우기, 이종격투기 배우기 등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생각 났으나, 평일에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 보기로 했다. 가까운 한마음회관의 강좌에서 찾은 것이 '연필 인물화 강좌'였다. 초등학교 시절 미술시간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다음날 교실 뒤 벽보에 걸린 장면을 보고 미소 지었던 추억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어릴 적 기억을 되살려 이 강좌를 수강해 보기로 했다.

준비물은 스케치북, 연필, 지우개 그리고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되고, 매주 화요일 퇴근 후 2시간만 할애하면 됐기에 부담도 없었다.

너무 오랜만에 스케치북에, 그것도 사람 얼굴을 그린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누구를 그려야 하나 고민이 됐다. 휴대폰 속 사진들을 검색 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진을 고르고도 그림을 그리는 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우선 나와 가족들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회사 동료들을 그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력이 좋지 않아, 괜히 그렸다가 욕만 먹는 건 아닌 지 걱정이 들긴 했지만, 의외로 동료들은 내 그림을 좋아했다.

어떤 이들은 내가 그려준 그림으로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꾸기도 하고 본인들 SNS에 올려 자랑을 하기도 했다.

미술 전공자도 아닌 게다가 몇 달 배우지도 않은 회사 동료가 그려주는 본인들 모습이 나쁘지 않았나 보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한마음회관 1층에서 수강생들이 그린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나도 내가 그린 회사 동료의 얼굴 그림 하나를 출품하게 되었다.

비록 가야 할 길이 먼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주변사람들과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는 취미 생활 덕에 나는 요즘 매주 화요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 플랜트기계배관구매팀 박민수 과장

▲ 수출입지원팀 권유리 대리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질문은 없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 담겨있는 「질문하는 공부법 하브루타」라는 책을 회사 지인으로로부터 선물 받았다.

책이란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정도로 책을 멀리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나는 갑자기 무슨 의무감 때문인지 완독이라는 목표가 생겼다.

아마 집에 있는 아이가 좀 더 멋진 삶을 살길 바라는 간절한 아버지의 사랑이라 유추해본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사소한 질문이라도 자주 하고 함께 토론하며 답을 유추하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지 못한 한국기자 이야기가 SNS 상에서 뜨겁게 회자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못하여 결국 중국 기자에게 선택권이 넘어가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널리 퍼졌다.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이들이 반성하고 낮부끄러워 했고, 나 역시도 그랬다. 왜 우리에게 질문이라는 존재는 어려운 벽과도 같을까?

아버지 세대로 잠깐 돌아가 보면 식사 시간 중 질문을 하면 항상 '조용히 하고 밥 먹어'라는 대답이 일쑤였다. 식사 중 말을 많이 하면 복이 달아나버린다는 어른들의 속설 때문. 또, 방과 후 부모님들은 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왔나?'고 물어 보신다. 이에 난 '학교란 질문하면 안 되고 오직 선생님 말씀 잘 듣기만 하는 곳인가 보다'라는 엉뚱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책 속에 담겨있는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가 스스로 사고하는 습관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모는 단순히 '친구' 역할이 아닌, 아이를 훈육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멘토'였다.

이에 나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는 아버지가 되리라 마음 먹었다. 아이들의 뇌 발달에 좋은 영향을 주고 아이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답하는 습관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면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해주는 것도 아버지인 바로 나의 역할이다.

예전에 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지원해주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가면서 새로운 자녀교육법과 함께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다. 그야말로 귀한 시간이다.

2018년, 새해 목표는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수없이 주고 받으며 추억을 남기는 것으로 정했다.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키고, 아버지의 정체성을 지키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것이 내 2018년 새해 목표이자 바람이다. 많은 사우들이 나의 굳은 다짐을 지켜봐주면 좋겠다.



박종선 회장
현대삼호중공업 대조림부



이계한 씨

2008년 현대중공업 정년퇴직

후배들에게 보내는 편지

사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08년에 현대중공업을 정년 퇴직하고,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 몇 글자 적어봅니다.

“밝게 살아라. 잘 웃어라. 적게 먹어라. 일을 즐겨라. 부부 사랑하라. 취미를 가져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봉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라. 꿈을 가져라.”



위에 나열한 문구는 장수건강 28계명인데 지면상 다 나열하지는 못했습니다. 위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건강'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합니다. 본인이 지켜야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장수 계명을 잘 실천하여 건강에 유의하세요.

인내와 신용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있고,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도 있지요. 어려운 난관을 참고 건디면 분명 그 대가는 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또, 신용은 사회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신용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 약속 하나가 큰 신용을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웃에게 베풀세요.

지금도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 고아,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이 우리 곁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봉사를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몇 달이 지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사우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빌며, 새해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새해가 건네준 희망의 꿈

새해 맞이 하면서
가슴 설레임 없다면
새해 맞이가 아니리

수평선 끝 붉은 빛으로
힘차게 솟는 태양 보며
희망의 꿈 가져본다.

꿈을 새롭게 가진다는 것은
백척간두에서 지난 삶 되돌아 보는 것

새벽길은 숙련된 경험으로 가고
갈림길은 표지판 보며 가게 된다.

살면서 두려워하는 건 고통이지만
삶은 고통을 통해 단단해 지는 것

결과의 진짜 주인은 실행이기에
주인되는 희망의 꿈 가져본다.



김종규 기원
현대미포조선 의장부



Book: 이 책을 추천합니다



게임스토밍 (데이브 그레이, 서니 브라운, 제임스 메카누포 지)

모두들 어렸을 적 게임 하나에 열정적으로 매달리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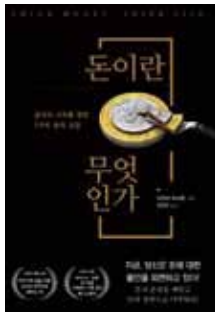
이 책은 게임의 원리를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상상하라, 창조하라, 시작하라, 탐구하라, 마감하라 등 5단계로 이루어진 90여가지의 게임스토밍은 조직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조직에서 부딪히게 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재미있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만 회피하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혁신이 필요하다면, 오늘 회의는 게임스토밍을 통해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현대중공업 디자인연구실 최수민 연구원



돈이란 무엇인가 (이즈미 마사토 지)

일본 최고의 금융교육 전문가이자 파이낸셜아카데미 그룹의 대표인 저자는 이 책에서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돈'의 본질을 묻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돈의 취급법과 7가지 돈의 교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돈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부터 모으는 법, 사용법, 버는 법, 불리는 법, 유지관리, 사회환원 등 돈을 마주하는 법을 7단계로 나눠 알려줍니다. 특히,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이 중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레벨 업을 하는 방법,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돈은 '더러운 것', '저속한 것'이라는 선입관과 감정에서 벗어나, 훌륭한 인격을 만드는 도구로서 돈을 사용하는 지혜를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협력사지원팀 박영락 사원



내 마음을 읽는 시간 (변지명 지)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르는 책입니다. 참 별거 아닌 듯 한 말이지만 왜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지요.

이 책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법한 개념들을 모아 엮었습니다.

자기분화, 애착, 정서분별 등 삶을 탄탄하게 만드는 7가지 마음 도구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하며 감정을 보고, 삶을 긍정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이들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소홀하게 될 때, 그러한 일상이 쌓이며 무너지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될 때의 회복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므로 관심 있는 사우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선실생산부 윤빛나리 사원



터널 (소재원 지)

이 책은 작년 여름에 개봉한 하정우 주연의 영화 '터널'의 원작 소설입니다. 영화를 너무나 재미있게 본 기억에 원작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는지 궁금하여 단숨에 책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는 왠지 모를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주인공이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영화와 달리 원작에서는 터널에 갇혀 하루하루 연명하다 좁은 차 안에서 불을 내어 운명을 달리하고 말기 때문이죠.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이 나는 소설입니다만, 개인이라는 가치와 집단이라는 이익이 상충될 때 과연 어떤 선택이 보다 올바름에 근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만한 철학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나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해양설계운영부 배철민 차장

사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著)

‘너의 취장을 먹고 싶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땐 이게 무슨 해괴한 제목인가 싶었습니다.

이 책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소녀와 함께 한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소설로, 2016년 일본 서점 대상 2위에 오르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지난해 한국에서 개봉한 인기작품입니다.

자의적인 은둔형 외톨이 남학생과 초공정 인기 만점 여학생 야마우치 사쿠라.

우연히 ‘불치병으로 시한부 일 년’이라는 비밀을 공유하는 바람에 ‘죽기 전까지’ 임시 친구 계약을 맺으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섬세한 문체와 작품을 끌고 가는 작가의 필력 덕분에 책에 푹 빠져 페이지를 넘기는 손을 멈출 수 없을 정도로 흡입력이 강하답니다.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권나연 사원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나다운 著)

어른이 된다는 건, 울지 않는다는 것일까.

가슴 따뜻한 위로와 조언이 담긴 이 책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가 약해졌을 때, 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봐주고 곁을 지켜줄 의리 있는 친구 같은 책입니다. 무심하게 툭툭 내뱉는 듯 하지만 내 마음에 공감하며 조언을 건네고, 힘든 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용기를 전해줍니다.

어른이라서 감춰야 했던 속마음을 이 책을 읽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지 말기!’ 차라리 울고 털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힘차게 일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삼호중공업 사업기획부 한동완 대리



불안 (알랭 드 보통 著)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불안’은 어둠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불안을 떨쳐내고,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는 일련의 행동을 하며 이 감정과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철학, 문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안이 생기는 원인을 탐구하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힌트를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을 떨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불안’에 맡겨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니까요.

현대중공업 수출입지원팀 김수연 사원



황설수설하지 않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법 (고구레 다이치 著)

간혹 설명을 하다보면, 내가 할 말 초차 정리가 되지 않아 황설수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말이 길어지고, 말의 핵심을 말하기도 전에 다른 이야기들로 인해 핵심을 잊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저자는 설명을 못하는 데는 사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센스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 요점과 결론, 이유 등 몇 가지 공식만 유념해도 단순하고 명쾌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일목요연하게 말을 잘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그림과 함께 소개되어, 지루함 없이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상에서도 늘 하는 대화, 이왕이면 알차고 정확하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현대삼호중공업 선각기술부 윤창민 사원



“행복한 순간을 함께 합니다!”

결혼



현대미포조선 생산관리부
문두희 사우, 협력사지원팀 박지영 사우

신랑 문두희·신부 박지영
12월 9일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영아! 오빠랑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고,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현대글로벌서비스 선박기자재팀
박상현 사우

신랑 박상현·신부 김민정
12월 16일

사랑한다!



현대일렉트릭 설치기술부
박은하 사우

신랑 박수연·신부 박은하
12월 17일

꽃 같은 그대, 나무 같은 나를 믿고 길을 나서자.
그대는 꽃이라서 10년이면 10번은 변하겠지만,
나는 나무 같아서 그 10년
내 속에 둥근 나이트로만 남기고 말겠다.
타는 가슴이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길가는 동안 내가 지치지 않게 그대의 꽃 향기
잃지 않으면 고맙겠다.



유원이엔지
조정국 대표

조정국·전외자 장녀 조지연
12월 17일

금번 저의 딸자식 결혼식에 보내주신 정성과
후의에 머리 숙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귀댁의 대소사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보은의 기
회를 주시기 바라며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의장부
김서광 사우

신랑 김서광·신부 이지영
12월 23일

만나는 동안 늘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하던 당신의
그 열정과 다짐들을
평생 기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시운전부
김민석 사우

신랑 김민석·신부 장선영
1월 6일

선영아!
우리가 회사에서 만나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결혼을 하네
앞으로도 우리 더더욱 행복하게
서로를 위해주며 이쁘게 사랑하며 살자!
사랑한다 장선영♡♡

현대중공업그룹 가족들의 결혼, 출산, 돌 등 소중하고 행복한 소식을 함께 전합니다.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우 분들은 매월 20일까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gp069@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출산



현대중공업 해양시운전부
홍상기 사우

신랑 홍상기·신부 구은지
1월 13일

각자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저희가
이제 부부의 연으로
한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평생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로
살겠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선각기술부
조동형 대리

아빠 조동형·엄마 김연성 딸 조하음
12월 6일

내 딸 하음아!
엄마 아빠가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아빠가 정말 사랑해♥

돌



현대중공업 고압차단기생산부
김완수 사우

아빠 김완수·엄마 최수진 딸 김리안
12월 16일

부모라는 이름을 선물하고 큰 사랑과 감
사를 가르쳐준 우리 아이가 드디어 첫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대미포조선 종합설계부
최영훈 과장

아빠 최영훈·엄마 정시내 딸 최정안
12월 25일

사랑스런 정안아
첫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온 세상이 축복하는 크리스마스에
우리 정안이의 이쁜 웃음이 더해져
더욱더 행복한 날이 되겠네^^
사랑해!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지원팀
김래현 과장

아빠 김래현·엄마 최슬아 딸 김라운
1월 3일

라운아!
너의 이름처럼
밝은 빛을 끌어 당겨
주위를 밝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미포조선 총무팀
이영진 대리

아빠 이영진·엄마 이영란 아들 이동혁
1월 12일

동혁아!
태어나 처음 맞이하는 생일 축하해~
항상 밝고 건강하게
멋진 남자로 자라렴^^

“잘못 배송된 내 신발 돌려줘요~”

질문

정 대리는 연말을 맞아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고급 갈색 로퍼를 구매하려고, 인터넷 최저가 판매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갖가지 쿠폰을 써서 최저가로 갈색 로퍼를 구매했고, 사이트 페이지의 ‘택배기사에게 전하는 말’에는 “부재 시 경비실에 두시길 바랍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정 대리는 수시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배송조화를 확인했고, 배송완료가 떠 있어서 퇴근길에 배송되어 있을 택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택배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택배가 오지 않자 인터넷 쇼핑몰에 전화를 했고 자신이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잘못 주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 대리는 부랴부랴 예전 주소지로 방문해 경비실을 찾았는데, 택배 수령 목록에는 배송 주소지에 사는 사람이 물품을 수령해간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정 대리는 배송 주소지에 사는 사람에게 물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사람은 처음에 모르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로퍼를 주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대리는 자신이 잘못된 주소지로 주문한 잘못이 있어서 쇼핑몰이나 택배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정 대리는 갈색 로퍼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해결책이 알려져 있는 택배 오배송 사례에서는 판매회사나 택배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회사나 택배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주문자가 이전에 살던 주소지로 잘못 주문하였기 때문에 판매회사나 택배회사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 대리는 배송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요청해야 하거나, 배송 받은 자는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평화적인 해결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배송 받은 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협상이 순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건을 받아놓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종래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횡령죄(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횡령죄의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임관계가 없는 정대리와 배송 받은 자 사이에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착오송금 사례에서 대법원은 “어떤 예금 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이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배송 받은 자가 정 대리의 반환요구를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 대리와 배송 받은 자 사이에서도, 착오송금 사례처럼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지만, 착오로 잘못 배송된 택배물에 대해서 배송 받은 자의 신의칙상 보관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정 대리는 배송 받은 자에게 위와 같은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끝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배송 받은 자에게 반환요구 하였으나 배송 받은 자가 거짓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녹취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수사기관에 배송 받은 자를 횡령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이후 배송 받은 자가 배송물품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 물품을 돌려받고 합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 정지원 변호사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평소 궁금했던 법률상식이 있다면 사례와 함께 제보해 주세요! 사보편집실에서는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현대중공업 국내법무팀 정지원 변호사 (geewon@hhi.co.kr) , ☎02-746-4667

현중이네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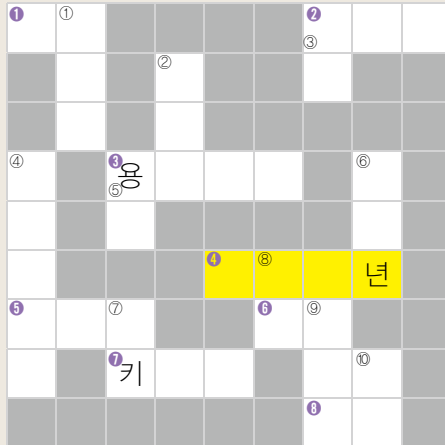
by 연자씨



쉬어가는 페이지

당첨된 사우는 사원증을 가지고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상품(권)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발행일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십자말 풀이



가로 열쇠

- 1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 (p.56 참고)
- 2 낡은 선박의 녹과 조개껍데기 등속을 벗겨내기 위한 망치질 소리를 나타낸 의성어. (p.50 참고)
- 3 용과 범이 서로 싸운다는 뜻으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르는 말.
- 4 삼가 새해를 축하한다는 뜻으로, 새해의 복을 비는 인사말.
- 5 서양 자수를 통칭하여 000 자수라 하는데, 이는 유럽에서도 이 국가가 자수 기법이 가장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 국가는? (p.67 참고)
- 6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줌.
- 7 검색이나 광고, 내용 요약,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사용하는 핵심 단어.
- 8 장교와 부사관, 사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세로 열쇠

- 1 신선이 먹는 과일로 믿어져 장수를 상징한다. 속세를 떠난 이상향을 일컬어 무릉도원이라 하는데, 이는 이 꽃이 파는 아름다운 곳을 의미한다. 이 과일은?
- 2 '포스트 이영표'라 불리는 이 선수가 독일 도르트문트에 서 세 시즌을 보내고, 울산현대에 합류했다. (p.64 참고)
- 3 키나 길이 따위가 어지간히 긴 모양.
- 4 울산 울주군은 산악문화관광의 특색을 살려 전통시장의 명칭을 00000로 바꾸고 시장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p.42 참고)
- 5 점막이 있는 곳 어디에든 생길 수 있는 대장암의 씨앗, 대장 00. (p.54 참고)
- 6 '황금 개띠의 해'인 2018년 0000이 시작됐다.
- 7 합판, 글라스, 메탈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길고 평평한 화면에 구두나 장화를 붙인 것을 신고 눈 위를 활주하는 스포츠.
- 8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옴.
- 9 쇠고기를 삶아서 알맞게 뜯어 넣고, 열큰하게 갠 양념을 하여 끓인 국.
- 10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네'이라고 대답하는 강박 증세를 이르는 말. (p.40 참고)

퀴즈 당첨자

울산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권(1매)

류병욱 현대중공업 선형의장부

Hotel Hyundai 뷔페권

박병성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현대예술관 영화관람권(2매)

문승환 현대중공업 FLNG FEED부

김호민 현대미포조선 건조2부

복지화관 수영장 이용권(1개월)

손민재 현대중공업 특수선체설계부

이준영 현대미포조선 선설계부

아산체육관 아이스링크 이용권

최수진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경영기획팀

장현진 현대중공업 구조설계부

이정도 현대건설기계 품질경영부

울산현대축구단 상품권(2매)

백경환 현대일렉트릭 변압기생산부

김영훈 현대중공업 화공시스템연구실

송인수 현대중공업 대조립부

정해호 현대미포조선 생산관리부

최준순 현대미포조선 공사지원부

Starbucks 식사권(5만원)

박태욱 현대중공업 도장부

박위태 현대중공업 특수선수중합의장설계부

최현중 현대미포조선 선설생산부

Hotel Hyundai 목포 뷔페권(2인)

김창민 현대삼호중공업 선각기술부

Hotel Hyundai 케이크 교환권(1매)

이대웅 현대삼호중공업 선장설계부

조준영 현대삼호중공업 재무성과분석팀

사내 매점 간식 교환권(1만원)

최은영 현대삼호중공업 선형도장부

김선일 현대삼호중공업 도장2부

박수지 현대삼호중공업 자산운영팀

박성민 현대삼호중공업 의장부

강소연 현대삼호중공업 인력개발부

신안 천일염

오형정 현대삼호중공업 안전보건부

도왕형 현대삼호중공업 전장선설계부



Starbucks 기프트 카드(2만원)

김희정 현대삼호중공업 계약운영부

정대원 현대삼호중공업 판넬조립부

지난호 정답

크				무	라	카	미
리				심	근	경	색
스	마	트	팩	토	리		
마							
스	옥	션				토	
		의			호	르	사
	인	티	그	릭	랑		
기	증	품		두	바	이	
회	복	탄	력	성			

가로 4번의 정답을 1월 17일까지 이메일(news@hhi.co.kr)로 보내 주세요!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입력)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 핸드폰 '문자 보내기'의 수신자에 전
화번호 대신 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별
도의 절차 없이 바로 메일을 보낼 수 있
습니다!

문자 메시지

✉ 받는사람

news@hhi.co.kr

정 답

회사명

부 서

이 름



현대중공업 기장설계부 박찬세 대리

요즘 제가 회복탄력성을 키우고자 스포츠, 여행 등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고 나니 어려운 일도 가볍게 처리하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뭐든지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니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조금씩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웃음이 없던 제가 웃음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우분들이 회복탄력성을 키워 즐거운 회사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현대미포조선 선실생산부 최현종 과장

'건강칼럼' 코너를 읽고 겨울철 건강관리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심근경색' 발병률이 높다고 하니, 사보에 적혀있는 예방법을 숙지해 모두가 건강하게 겨울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삼호중공업 탑재팀 김정원 직장

정주영 창업자의 "길이 없으면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 나가라"는 기업 이념 목표에 알맞게 사보는 직원들에게 '나침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말하다' 의 코너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소식, 축제, 사랑을 나눕시다' 등의 코너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 봉사하는 좋은 기업의 모습을 보여줘 애사심을 높여줍니다.

2018년에도 현장의 목소리, 기업 이념과 목표, 기업 현황 등의 정보로 회사와 사우들이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대중공업 해양기술영업부 안영찬 대리

사보를 읽을 때면, '현장을 가다'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배웁니다. 특히 12월 호에서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정비팀의 업무와 노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정비팀의 노력으로 모두가 안전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선체가공부 박병성 기사

눈의 계절이 다가온 만큼, 가족들과 함께 놀러갈 수 있도록 전국 눈꽃축제에 대해 소개해주었으면 합니다. 2018 무술년에는 모두가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 E&T 문태준 사원

사보에 처음으로 글을 실은 건 2015년 여름부터였습니다. 책에 대한 생각을 사우들에게 알려주는 재미를 알게 되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읽어 사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독서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데 사보 덕분에 독서량이 늘게 됐습니다.

또한 사보에 글을 올리고 받는 상품으로 저희 팀원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요?

현대중공업MOS 다호이엔지 정종하 사원

사보의 목차와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어 보기가 좋네요. 특히 이번 호에는 전국의 겨울 축제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찬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호에서도 참고할만한 겨울철 여행지를 소개해주세요.

'현대중공업 가족 1월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소감, 아쉬운 점이나 다음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1월 17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 (회사명, 부서, 이름 필수 기재)

각 사별 사보편집실 또는 이메일 (현대중공업 jin0724@hhi.co.kr / 현대미포조선 340871@hmd.co.kr / 현대삼호중공업 sara654@hshi.co.kr)

사보에 게재되신 분들께서는 사보편집실로 오셔서 시설 이용권(1만원)을 받아 가세요. 상품 수령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술년 새해를 밝히는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모든 임직원이 마음을 모아 희망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